

제213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데이터 경영' 가동 10



최원석 질경이 대표 "연내 코스닥 도전" 21

코스피(10일 전주 대비) **2108.04** (-88.28P)
코스닥 **722.62** (-39.2P)
환율(달러당 원화) **1177.00** (+7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19%** (-0.02%p)

“인내심 테스트하나” LTE보다 느린 ‘5G’

스페셜 리포트

주요 광역시 서비스 실측 결과

부산역 한 곳서 SKT만 접속
자신했던 서울은 전혀 안잡혀
설익은 서비스 탓 ‘불통’ 오명

이통 3사 5G 접속 현황

	SKT 5G	KT 5G	U+ 5G
서울(영등포)	X	X	X
서울(용산)	X	X	X
대전역	X	△	X
광주역	X	X	X
대구역	X	X	X
부산역	O	X	X
부산터미널	X	X	X

O: 접속된 곳 △: 간헐적 접속 X: 접속되지 않은 곳

“5G 초시대(SKT)” “5G 당신의 초능력(KT)” “일상을 바꾸는 5G(LG유플러스)”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내건 슬로건이다. 5G 상용화 한 달. 실제로도 LTE를 압도할 만한 속도로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설익은 5G 서비스 탓에 ‘불통 5G’, ‘막통 5G’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이달 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를 직접 돌며 5G 네트워크 접속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제대로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네트워크 설정에서 5G 접속을 우선하거나 강제로 지정해 놔지만, 인터넷 사용과 속도 측정 모두 LTE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5G 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단말기가 5G 네트워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서울(용산·영등포),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다녀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전용 갤럭시S10 5G폰 단말 3대를 들고 지역별로 5번씩 속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냈다. 5G 상용화 초기를 고려해 네트워크 속도가 가장 잘 나오는 기차역 대합실과 그 주변으로 장소를 한정했다.

결과적으로 5G 네트워크가 잡힌 곳은 부

산역 딱 한 곳이었다. 그마저도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잡혔다. 하지만 5G와 LTE의 속도를 비교 측정해 보니 LTE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모두 빠르게 나왔다. 5G의 경우 다운로드 업로드가 각각 322Mbps(초당 메가비트), 17.7Mbps를 기록했다. 반면, LTE 모드로 측정했을 때 다운로드드는 326.8Mbps, 업로드는 24.Mbps를 기록, 5G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기지국이 부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많이 깔리지 않았다”며 “LTE는 현재 완성된 네트워크 망인 반면 5G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LTE가 빠르게 나온 것 같다. 부산을 포함한 5대 광역시에 빠르게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역의 경우 KT 기기에서 5G가 일시적으로 잡혔다. 하지만 촘촘하지 않은 5G 기지국 탓에 금세 끊겨 LTE 신호로 바뀌었다. 벤치마크 속도 측정의 경우에도 서너차례 5G 속도로 잡혀 측정되는 듯했으나 중간에 신호가 끊기면서 측정이 무산됐다.

이통 3사가 가장 자신했던 서울 중심가에서도 5G는 잡히지 않았다. 용산역(KTX)과 영등포역 두 곳에서 5G 연결을 확인했지만, 이통 3사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병근 기자 nova@
이재영 기자 lly0403@



초여름 더위 속 신나는 물놀이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기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역협상 ‘노 딜’ 후폭풍...美, 中에 추가 관세

오늘 32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세부방안 공표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 D.C.에서 가진 장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전쟁을 확대한다.

1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0일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13일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새 방침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10일 회담에서 류허 부총리에게 앞으로 3~4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325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다음 무역회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중 양국은 협의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미국은 관세 전쟁 제4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미·중 장관급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마무리된 10일 저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서둘러 성명을 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 있는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며 “이에 USTR는 13일 총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산

업계 의견을 근거로 관세 발동 시기와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발동은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제4탄 검토 대상에는 휴대폰(432억 달러)과 노트북(375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조립하는 하이테크 제품이다.

특히 애플 핵심 제품인 아이폰도 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애플 주요 공급망은 약 200개사에 달하는 데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진행되지만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알림

2019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

2019.5.30 (오우 2시~5시 1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9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콘퍼런스는 ‘정확한 평가가 사회 가치를 높인다’를 주제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 활동 평가 및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해 개최되고 있는 CSR 전문 콘퍼런스로, 국내외 CSR 전문가를 초청해 CSR의 국제적인 동향과 주요한 논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사라 올슨(Sara Olsen) 소셜 밸류 US(Social Value US) 창립자가 기조 발표에 나서며,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Baptiste de Clarens) 사노피 파스티르 대표이사, 아리안 하씨니(Arian Hassani) JP모건 글로벌자산부담 부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이종일 KT글로벌비즈니스개발팀장이 사회자로 나섭니다.

우리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2019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14:00~17:10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 주최**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 대외위원회
- 주관** **이투데이 미디어 KOSRI**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CSR정책연구포럼, IFK임팩트금융, 대한상공회의소
- 문의** 이투데이 사업부 (02) 799-2683

버스대란 앞두고...정부 “요금 인상 필요”

국토부·고용부 합동연석회의
“지자체·노사도 교통 분담해야”

정부는 12일 총과업으로 지달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합동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합동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을 해온 만큼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버스노조가 총과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는 최대한 지원

하겠다.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고용 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 버스요금 현실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 없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연장 운영 및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지자체별 비상 수송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실용주의 앞세워 미래성장 과감히 추진



구광모 회장 1년...LG 변화

- 6월** → 구광모 LG 회장 선임
→ 구본준 LG 부회장 경영서 퇴진
- 7월** → 구광모 회장 첫 출근
→ 원포인트 인사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LG 부회장
→ 하현희 LG 부회장
→ LG유플러스 부회장
- 8월** → LG전자, 오스트리아 전자부품 회사 ZKW 인수 마무리
- 9월** → 구 회장, LG사이언스파크 방문 (첫 현장 방문)
→ 복장 자율화 전면 시행
→ 구 회장,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동행
→ LG 서버원 MRO 사업 분할
- 11월** → 순혈주의 타파... 신학철 3M 수석부회장, LG화학 CEO로 영입
→ LG전자 3900명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결정
→ 구 회장, 구 본부 회장 LG주식 상속세 1차 납부
- 1월** → LG사이언스파크 첫 신년사... 격식 배제·캐주얼 분위기
- 3월** → LG 부동산 유통화 속도... LG상사 트윈타워 일부 매각
→ LG 분기별 임원 세미나, 월례포럼으로 전환
→ LG 계열사 이사회 독립... 전자·디스플레이 등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4월** → 구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 실리콘밸리서 스타트업 투자 점검
→ LG전자, 팹텍 스마트폰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

토론식 사업보고회 열고 소통 창립 후 첫 외부인사 영입 잇단 美 스타트업 투자도 공정위, 그룹 총수로 지정할듯

지난해 5월 20일, 고(故) 구본부 LG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면서 아들인 구광모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기 시작했다. 구광모 회장은 같은 해 6월 29일 (주)LG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총수의 등장으로 지난 1년간 LG그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에서 평가하는 구 회장의 1년은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권위주의를 벗고 실용과 개방을 앞세우며 그룹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구 회장은 취임 이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조용히 출근했으며, 9월에는 복장 자율화를 전면 실시한 데 이어 연초 '새해인사 모임'에서는 임직원들이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자유롭게 인사를 나눴다. 과거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회장단과 사장단이 임원진과 순차적으로 악수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실용과 개방을 몸소 실천하며 경영진에 자신을 '회장' 대신 '대표'로 불러 달라고 한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한국(2월)과 미국(4월)에서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는 우수 연구개발(R&D) 석박사 인재 확보를 위한 'LG 테크 콘퍼런스'도 격식을 배제하고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열렸다.

구 회장은 국내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학원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일일이 40여 테이블을 돌면서 기념촬영에 응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계열사 사업보고회 역시 '일방적 보고'보다는 '토론 형식'의 사업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LG의 기업 문화에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 체계의 DNA를 심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관계자는 "13일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별 사업보고회가 순차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보다 더 자율적인 사업보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재 등용 역시 그룹 순혈주의를 벗어 던졌다. 지난해 구 회장은 LG화학 최고경영자(CEO)로 3M 출신의 신학철 부회장을 영입했다. LG화학이 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창립 후 처음이다.

구광모 회장은 그룹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선지로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선택했다. LG사이언스파크는 LG그룹의 R&D를 주도하는 곳이다. 당시 구 회장은 전자부품과 OLED 등 차세대 사업을 점검했다.

구 회장은 지난달 권영수 부회장, 안승권 LG사이언스파크 사장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찾아 운영 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총 4억 2500만 달러를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회사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바이오·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구 회장 취임 후 1

년간 LG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미국 스타트업에 약 19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위기 관리도 성공적이란 평가다. 정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계열사 서버원의 소모성 자재구매 부문(MRO)을 분할하고, 사모펀드 어피티에 에퀴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또 지난달에는 국내 평택 사업장에서 연간 500만 대를 생산하던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부문의 원가 절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세계 관계자는 "구 회장은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그룹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지난 1년의 행보를 보면 성공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15일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하고 타계한 고 구본부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부터 총수 자리를 공식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권태성 기자 tskwon@

20일 첫 기일... 故 구본부 회장 추모식 열리나

“임직원 위한 추모 기회 필요” 내부 여론... 방식 놓고 고민

고(故) 구본부(사진) 전 LG 회장이 향년 73세의 나이로 타계한 지 이달 20일로 1년을 맞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구 전 회장의 기일을 맞아 추모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평소 LG가(家)는 소탈과 탈격식을 지향해 왔지만, 올해가 구 전 회장의 첫 기일일 뿐 아니라 회사 임직원을 위한 추모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와서다.

LG는 대체로 대규모로 창업주 일가와 관련된 행사 등을 열지 않았다. 지난해 구 전 회장의 장례도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렀다. 구 전 회장이 복잡한 격식을 멀리하고 소탈한 삶을 일관되게 추구했던 만큼 유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따르기로 하면서다. 심지어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장례 당시 임원들 가운데 추모를 못 한 이들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회사 차원에서 추모식이 열릴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모식이 열리더라도 고인의 유지와 가족들의 뜻에 따라 간소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 전 회장이 잠든 곳

지아에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찾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LG 관계자는 구 전 회장의 추모식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 대규모로 추모 행사하는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며 "고인 가셨을 때 장례식도 가족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던 구본준 전 LG 부회장의 계열분리 작업은 현재 멈춘 상태다. 구 전 부회장은 LG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나 비상근 고문직을 맡고 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LG전자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LG화학 등기이사직도 만료됐다. 구 전 부회장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LG그룹 내 일부 계열사 분리 △주LG 지분 매각 후 일부 사업과 맞교환 △주LG 지분 유지 하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산화탄소를 지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무리하게 상용화 곳곳 먹통... '정부 주도 5G' 한계 노출

과욕이 부른 '5G 부실 논란'

세계 최초 타이틀 위해 일정 당겨
도심 편중된 기지국, 숫자도 부족
이통사 '정부가 하자는데' 냉기습
가입자 "돈 내고 베타테스트" 불만

5G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투데이가 전국 5대 광역시를 돌며 직접 확인한 결과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4G LTE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주파수 간섭으로 인해 LTE 전국 평균속도보다 떨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세계 최초 5G폰인 갤럭시S10 5G를 서둘러 구매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사에 개통 취소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우 기존 4G 사용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통사는 병어리 냉기습만 앓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위해 상용화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4G와 5G 차이 없다... 5G 서비스는 결국 소비자 우동 = 산술적으로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HD급 2GB용량 영화 1편을 다운로드할 때 LTE에서 16초가 걸리는 반면, 5G는 0.8초면 충분하다. 이는 이론적인 내용일 뿐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체감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투데이가 전국 주요 광역시 KTX 역사 대합실과 그 주변을 돌며 속도를 측정한



부산역에서는 유일하게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5G 네트워크망에 접속이 됐다.

광주역에서 5G 우선적용을 설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했지만, 단 한곳도 5G 망이 잡히지 않았다. 김범근 @nova

	SKT 5G	kt 5G	U+ 5G	
다운로드 속도 (단위: Mbps)	용산	200.2	84.28	45.88
	영등포역	301	264.6	74
	대전	324	274.6	185.12
	광주	259.42	68.66	219.2
	대구	124.5	154.8	112.74
	부산역	326.8(LTE)322(5G)	258.4	256.2
평균	255 (LTE 기준)	184	148	
업로드 속도 (단위: Mbps)	용산	27.18	23.2	29.72
	영등포역	28.4	39.6	33
	대전	35.7	12.76	36.28
	광주	24.2	12.1	38.6
	대구	35.56	17.4	48.94
	부산역	24.3(LTE) 17.7(5G)	29.8	57.1
평균	29	22.4	40	

결과 5G 연결은 단 두 차례만 확인됐다. 부산과 대전에서 SK텔레콤과 KT가 5G가 잡히긴 했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했다. 부산역의 경우 SK텔레콤 단말기만 5G가 잡혔다. 하지만 LTE 속도보다 오히려 느렸다. 대전에서는 5G가 땀다가 5초 내에 LTE로 전환됐다. 또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간 호환이 안 돼 수십 초간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현상도 발견됐다. 5G 단말로 4G LTE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격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LTE의 전국 평균 속도는 150.68Mbps다. 이 중 가장 속도가 잘 나오는 철도·지하철 역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30.78Mbps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측정 결과 5G 단말의 경우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현재 5G 가입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지국은 전국 5만4000여 개로 87만 개에 달하는 LTE 기지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마저도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일반 거리에서 이동하면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가능하다. 5G는 주파수 대역이 높

고 파장이 짧아 LTE보다 2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데 전국망은 2년 뒤나 갖춰질 것으로 보여 5G 서비스 안정화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한 5G... 과욕이 부른 폐해? = 지난달 3일 23시 아밤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공식 상용화 일정이 5일보다 이틀이나 앞당긴 것이다. 5G 세계 최초를 경쟁하던 미국의 버라이즌이 앞서

예고한 11일이 아닌 4일 1시(한국시간 기준)로 앞당기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과기부(과기부)가 이통 3사와 협의 끝에 2시간 빠르게 상용화한 것. 과기부와 이통 3사는 2년 전부터 2019년 3월을 5G 상용화 시기로 잡고 모든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단말기였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즉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는데 4G 서비스가 이제 막 자리잡는 단계였던 만큼 어떤 제조사도 5G 단말기 출시

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폰을 내놨는데, 과기부와 이통사의 체근에 쫓겨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5G 단말기를 출시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갤럭시S10 5G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선 현재 나온 단말기는 '5G 베타테스트용'이라면서 구입을 미루는 일도 다반사다.

김범근 기자 nova@ 이재영 기자 lly0403@

이통 3사 5G 기지국 수

업체	4월 기준	올해 목표
SKT 5G	3만8000개	8만개
kt 5G	3만5000개	8만개
U+ 5G	1만2000여 개	8만개

이통 3사 설비투자 변화

업체	2018년	2019년(예상)
SKT 5G	2조1000억 원	2조9000억 원
kt 5G	2조3000억 원	3조3000억 원
U+ 5G	1조3971억 원	1조8000억 원

“무늬만 5G·지역홀대 오명 벗는다” 과기부·이통사 '기지국 확대' 올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이통 3사는 올해 5G 안정화를 위해 업체별로 설비투자(CPAEX)를 최대 40%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5G 기지국을 전국으로 확대해 5G 커버리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통 3사가 전국에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약 5만2000여 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편차가 큰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5G 서비스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만8000여 개, 3만 5000여 개의 5G 기지국을 확보했다고 발표하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연내 5G 기지국을 7만~8만 개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편차가 가장 큰 LG유플러스(1만 2000여 개)는 6일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올해 말까지 5G기 지국 8만 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장비 개발·공급 일정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커버리지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통 3사는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올해 설비투자 비용으로 8조 원가량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30~40%가량 설비투자를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KT다. KT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3조3000억 원까지 늘린다. 지난해 2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43% 증가한 수치다. SK텔레콤도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40%까지 늘린다. 이 회사의 지난해 설비투자가 2조10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0~40% 증가할 경우 2조7300억 원에서 2조94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LG 유플러스도 설비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 유플러스의 설비투자는 1조3971억 원이었다. 30%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설비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5G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TF는 앞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기쁜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p>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p>	<p>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p>	<p>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p>
<p>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p>	<p>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p>	<p>대한민국 여성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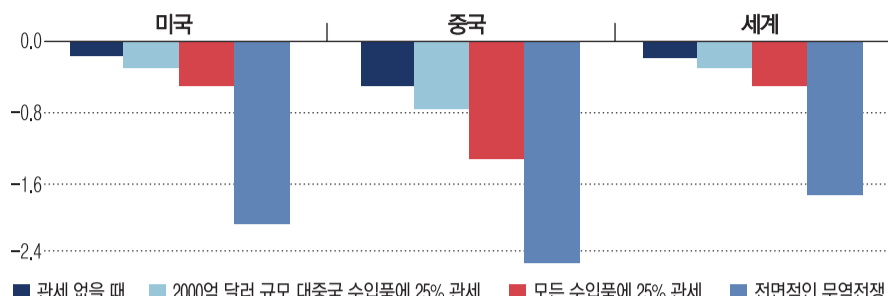
“對中 의존도 높은 한국수출 0.14% 줄어든 것”

중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시 美성장률 0.5%p 하락
내년 中경제성장률 1.3%p 떨어져 5%대 기록 가능성
글로벌 기술제품 공급망 韓·日·대만 등 충격 불가피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고위급 무역협상에 서 결국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노 딜(No Deal)' 파국을 맞이했다. 이에 글로벌 경기둔화 불안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금융전문매체마켓워치는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산하면서 추가 관세 인상 위험이 양국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리서치 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방관자들도 무역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방의 수출 품 중 절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포인트, 중국은 0.8%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미국 경제가 약 290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금액상으로는 1050억 달러 이상이다. 무역 전쟁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25%로 높이고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금액상으로는 관세가 없을 때와 비교해 경제규모가 약 450억 달러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2020년 말 미국의 실질

무역전쟁이 미국·중국·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경제성장률이 1%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약 1.3%포인트 하락해 전례 없는 5%대 성장률을 기록할 위험이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 기술제품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했던 아시아 국가들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4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5%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

내는 등 이미 미·중 무역 전쟁 충격에 휘말리고 있다. 리서치 업체 IHS마르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일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제조업 공급망 업체들은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24%에 달하며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 등 중간재 비중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상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수출이 0.10% 감소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0.04%의 간접적 감소 효과까지 감안하면 한국 전체 수출은 0.14%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혜택을 볼 국가도 등장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 IHS마르킷은 동남아시아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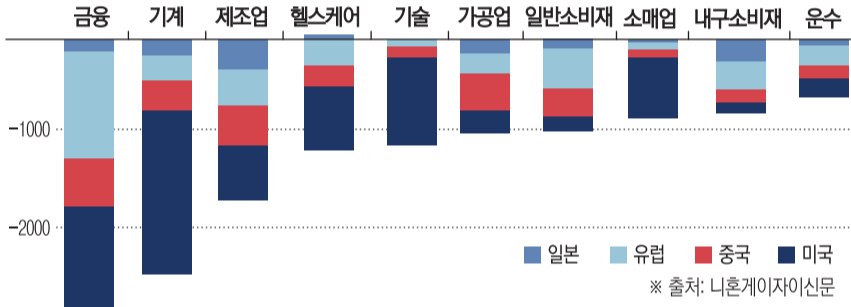
G2 무역전쟁 격화...한 주 새 글로벌 시총 2700兆 증발

美증시 6800억 달러·中서 3300억 달러 사라져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산할 것이라는 공포에 휘말렸다. 미·중 무역 전쟁의 갑작스러운 격화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간 약 2조2700억 달러(약 267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분석했다. 미국증시는 6800억 달러 시총이 사라졌으며 중국은 3300억 달러가 증발했다. 감소폭은 중국이 5.2%로, 미국(2.1%)의 두 배 이상이었다. 중국증시에서 무역 전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선 영향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트위터 트윗을 날린 5일 이후 전날까지 전 세계 약 4만8000개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 상기 결과를 도출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전기, 제조업 등의 시총 감소폭이 컸다. 이들 업종은 경기동향에 실적이 좌우되기 쉬우며 무역 마찰이 세계 경기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증시에서도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경기둔화로 인해 부실채권이 팽창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수

세계 주요 증시 업종별 시가총액 증감 (단위: 억 달러, 기간: 5~10일)



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중국 기술주도 하락세에 허덕였다. CCTV 카메라 부문 세계 2위 기업인 저장다화테크놀로지 주가는 지난주 11% 급락했다. 같은 업종 세계 1위인 하이코

비전과 경찰에 무선장비 등을 납품하는 하이테라 주가는 각각 9% 내렸다. 이들 기업은 올해 국방수권법에 의해 미국 정부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그럼에도 매도세가 집중된 것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 미국시장에서도 경기민감 종목에 매도세가 유입됐다. 화학기업 다우듀폰은 약 10% 하락했다. 이 업체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서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텔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대기업도 주가 부진에 허덕였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향후 수요 감소 불안에 부품업체인 무라타제자소 주가가 16% 폭락했으며 건설기계업체 고마쓰 주기도 10% 이상 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전히 낙관론도 시장에 남아있다.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미·중이 몇 주 사이에 포괄적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만큼 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도 부정할 수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경기 하방리스크 확산 우려…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고위 당정청협의회 개최

‘6.7兆 추경안’ 이달중 처리 총력 해양레저 활성화 등 내달 발표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법안도 만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상반기 내 추경을 집행하고, 국회 예결위 임기가 5월 말 종료 되는 것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 집행을 비롯한 함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재정을 통한 선제적·적극적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실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민간 투자’에 방점을 둔 경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원에서 환담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제활성화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과 혁신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 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두고 ‘기싸움’

靑 “5당 대표 머리 맞대야” vs 한국당 “일대일 회담해야”

여권과 자유한국당이 회담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의한 ‘일대일 회담’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제의한 여야정 협의회 재가동에 대한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현재로서는 청와대는 5당 대표가 모두 모이는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애초 문 대통령이 이 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야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일대일 회담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짝 막힌 정국을 풀고 민생법안 처리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위해선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도 필요해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회 재가동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내교섭 3당 회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숙제”라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여야정 협의회도 당연히 교섭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다”며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도 필요해 일단 5자회담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대북 식량 지원은 생색내기” ‘개성공단 재개’ 불쑥 꺼낸 北

美, 비핵화 없는 경험 반대 고수 정부, 궤족한 대안 없어 곤혹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북한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했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내밀어 우리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며 “(납축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 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추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변 환경에 얽매어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며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힘을 실어줬지만 북한은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문제로 정부를 압박함에 따라 조기 남북회담도 난망하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답답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조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얻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이 또한 여의지 않다. 신동민 기자 lawsdm@



메타그린은 왜, 녹차를 직접 재배할까?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100% 국내산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25만 고객의 선택 450억원 판매 2018년 구매고객 및 누적판매 기록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직 농장 직영 재배 관리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기술로 완성된 순수 녹차 정제



체지방 관리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국세 감면 관리 '오류투성이'... 14개 항목 과다·과소 계산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운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산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

‘자경농지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4년 동안 1조3744억 적게 반영 전체 조세지출 14% 5800억 오류 세금 감면 자격 분석도 쉽지 않아

·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

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서에 담긴 항목별 조세지출 실적은 오류투성이였다. 보고서는 기재부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확정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54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숫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 원이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 원이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 4조1465억 원의 약 14%인 5800억

원이 과다·과소 반영된 것이다.

특히 2014~2017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2017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 10위)' 실적치를 보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4년간 1조3744억 원이 덜 반영됐다.

보고서는 또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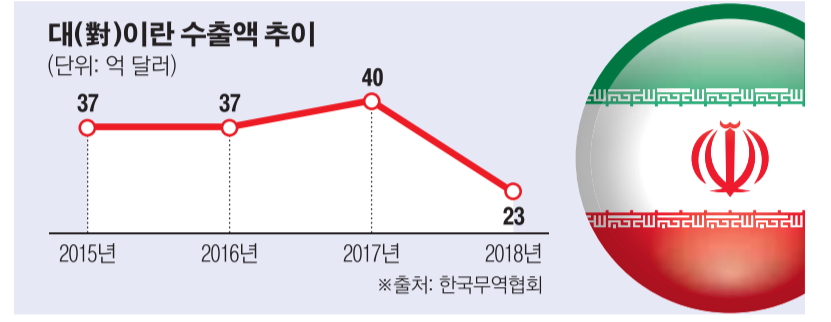
이 팀장은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지, 세수 손실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제도의 유지·개선·폐지 논의를 하

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작성 오류가 발견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지출 형식은 세제상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의 하나로 정치적인 과제는 점에서 평가와 준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조세지출예산서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 범위를 더 넓히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마르쉐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농부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는 '공정무역 농부시장'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무역과 서울지역 농부의 협업 결과물 및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제재로 원화결제계좌 결국 폐쇄 이란 수출기업 '발 동동'

작년 말 기준 2000억 이상 미수금 회수 불가 '후폭풍' 코트라 등 현황 파악 나서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대(對)이란 수출 대금 결제 통로인 원화결제계좌가 폐쇄됨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계좌 폐쇄로 이란 수출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화결제계좌 폐쇄 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우리은행,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이란 수출 미수금 현황 파악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중단했고, 우리·IBK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이란중앙은행 계좌)도 폐쇄됐다.

원화결제계좌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의 회사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수입 대금(원화)을 입금하고, 이란중앙은행이 수입 대금을 이란 기업들에 배정해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때 다시 원화로 받는 방식이다. 원화결제계좌 방식은 과거 미국의 이란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 결제가

금지되면서 이용돼왔다.

이란중앙은행이 작년말부터 이란 기업들에 대한 원화 배정을 지연시켜 우리 기업의 수출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번 계좌 폐쇄로 미수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작년 하반기 2000억 원 이상이던 미수금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유예 기간 만료(2018년 11월 4일)를 앞두고 작년 7월 기업들에 설문조사 돌려 파악한 대이란 수출 기업 미수금 규모는 2433억 원(총 411건)이었다.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돌려받은 미수금은 150억 원에 불과했다. 2283억 원(총 350건)의 미수금이 회수가 안 된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12일 "작년 하반기 때와 비교해 미수금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서 "다만 미수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대이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수금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미수금 규모가 최종적으로 집계되면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은 "美 성장률 2분기부터 낮아질 것"

미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GDP)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일시적 특이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시 요인이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내수가 견인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미국 수출 증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효과가, 수입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입관세 부과를 우려해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각각 작용했다. 대두 수출은 중국의 수입규제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24.9%와 81.3% 감소했으나, 올 1~2월 전 분기 대비 163.8% 급증했다.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가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이례적이다.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2013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미국 1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3.2% 증가했다. 이는 전 분기

1분기 GDP 3.2% '깜짝 증가' 中 대두 수입재개 등 일시요인 내수 견인 성장세는 이어갈 것

(2.2%)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된 것은 물론 2% 내외를 예상했던 주요 예측기관(블룸버그 서베이 2.3%, 뉴욕연준 나우캐스팅 1.4%)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수출은 상품을 중심으로 3.7% 증가한 반면, 수입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하면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전 분기 대비 확대(-0.1%포인트→1.0%포인트)됐다. 재고투자 기여도(0.7%포인트)도 비농업 부문 재고가 크게 늘어 예년 수준(2017년 0.0%포인트, 2018년 0.1%포인트)보다 높았다.

정부지출 역시 2.4% 증가했다. 섣다운(정부폐쇄) 영향 등으로 연방정부 비국방 부문은 감소했지만, 국방(4.1%)과 지방정부(3.9%)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1.2%) 및 고정투자(1.5%)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각각 2.5%, 3.1%)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은은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되긴 어렵다고 봤다. 순수출 및 재고 기여도가 2분기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분기 중 산업생산이 -0.1%로 부진하면서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1분기 중 부진했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노동시장 호조와 경제심리 개선 등을 바탕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중 연방정부 섣다운으로 부진했던 소매판매와 자본재수주 등이 3월 들어 개선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미국 경제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소비 등 내수가 견인하는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주요 예측기관들도 미국 2분기 이후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전문기자 kimnh21c@

캐나다, 철강 셰이프가드서 한국산 제외 (긴급 수입제한조치)

캐나다의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셰이프가드)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등, 철강 제품 2종에 대한 셰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은 셰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3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한국산 철강은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캐나다 정부에 셰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셰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7일 터키의 셰이프가드 철회에 이은 호재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다른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는 게 산업부 측의 우려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매장 임차인에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기존 임대 매장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류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해당 임차인들에게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새로 이동한 매장들은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정도 줄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규모유류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는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주유소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면?
생활의 스마트 네트워크, SK주유소



생각한다 i 그 극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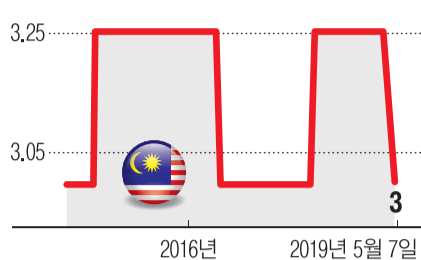
자동차 소재에 대한 상식을 뒤집으면?
미래자동차 산업을 바꿀 초경량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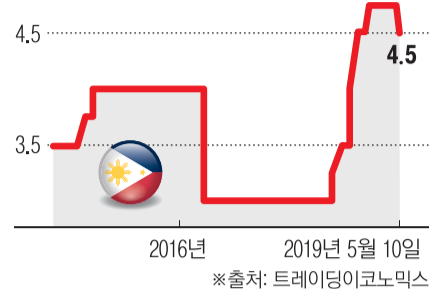
무역전쟁 불안 증폭... 글로벌 중앙銀, 속속 금리인하

보스틱 美 애틀랜타 연은 총재 “관세인상 타격엔 금리 낮출 것” 말레이·뉴질랜드·필리핀 등도 불확실성 선제대응 금리 내려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추이 (단위: %)



필리핀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도미노처럼 기준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10일(현지시간) 관세 추가 인상으로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전문매체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미시시피주 메디언에서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아직 미국 소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인상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기업이 관세에 따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아직 전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새롭게 관세 인상에 나서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들은 최근 연준 직원들에게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억

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며 “연준은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물가 상승이 확인되면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스틱 총재는 “연준은 민첩해야 하며 준비가 돼 있고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재빠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관세 추가 인상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낮은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장 큰 이유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으로 이를 날려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후퇴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앙은행들은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10일부터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4.50%로 적용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낮춘 것이다. 그동안 필리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금리인상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필리핀 기준금리는 무려 1.75%포인트 올랐다. 경기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결국 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된 셈이다.

9일 발표된 필리핀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6%로, 전분기의 6.3%에서 낮아지고 시장 전망인 6.1%를 밑돌았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지난 7일 기준금리를 3.0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3년 만에 첫 금리 인하다. 뉴질랜드도 8일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면서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지금 협상하는 게 유리” 트럼프, 시진핑에 경고

“두 번째 임기때 더 나쁜 딜 작면”

치를 단행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에 지금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때의 무역협상은 중국에 더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CN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 이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 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경제 지표와 고용 상황 등을 언급하며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내 두 번째 임기 때 협상은 중국에 더 나쁠 수 있다. 지금하는 게 낫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중국의 나머지 대미 수출품인 3000억 달러 이상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같은 관세 부과 조

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10일 협상에 대해서는 “건설적이었다. 적용된 관세를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협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음 협상이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는 중국이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의 합의사항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에는 일치했지만 협상 난항의 주원인인 국가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다며 세계 경기의 가장 큰 위험이 될 미·중 무역충돌이 다시 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9-10일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장관급 합의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의 관세 추가 인상을 견뎌야 할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피랍 한국인 여성 28일 만에 구출 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비행장에서 마중 나온 에마누엘 마크롱(오른쪽에서 두 번째)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부르크나파소의 무장 테러집단에 억류됐던 한국인 여성 1명과 프랑스인 남성 2명은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프랑스 특수부대의 작전 끝에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전사했다. 빌라쿠블레/EPA연합뉴스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첫날인 10일(현지시간), 디라 코스로사히 우버 최고경영자(CEO)가 기업공개(IPO)를 알리는 종을 치고 있다. 뉴욕/UPI연합뉴스

상장 첫날 날벼락 맞은 우버 G2 악재에 주가 7.6% 급락

미·중 무역협상 좌초로 인한 불똥이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기업공개(IPO)에 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서자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상장에 나선 우버 주가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시장에 불어 닥친 ‘퍼펙트 스톰(유레없이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이 우버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IPO를 망치게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 우버 주가는 공모가 대비 7.6% 급락한 41.57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우버는 IPO 공모가로 45달러를 책정했다. 공모가 예상 범위였던 44~50달러의 하단으로 예상보다도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올해 상장한 경쟁업체 리프트가 상장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첫날 주가가 급락하는 굴욕을 맛본 것이다. 우버의 ‘굴욕’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최악인 가운데 첫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미중 무역협상 난항으로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00포인트 가량 빠졌다. 추후 반등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의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의 나머지 대미 수출품인 3000억 달러 이상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실험 일부 재개 선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위기도 증시 불안을 부추겼다. 지난 3월 상장 첫날 급등한 이후 20% 이상 하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는 우버 경쟁사 리프트 주가 동향도 악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 증시가 최악의 성적을 보인 지난주에 우버가 상장해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5G·IoT시대 대응”... 日, 휴대폰 번호 100억 개 늘린다

일본이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맞아 2020년까지 휴대폰 전화번호 100억 개를 추가한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2020년 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간다. 5G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보다 최대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초고속’ 5G 덕분에 사물인터넷(IoT)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는 기기마다 통신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별 장비에 할당된 휴대폰 번호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IoT 기기에

사물인터넷시대 일본 휴대전화번호 변화

앞자리 숫자	용도	개수
020	기기간 통신	8000만
11자리 번호 → 14자리 100억 개 증가		
050	IP 통신	9000만
070/080/090	휴대폰과 기기간 통신	2억7000만
휴대전화		
03 등 시외국번	유선전화	4억1992만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02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할당해 왔다.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020’ 번호는 총 8000만 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3000만 개 이상이 할당된 상태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 이 숫자가 부족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총무성은 ‘020’으로 시작하는 번호 100억 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125배 늘어난 수치다. 총 자릿수도 14자리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휴대폰 번호는 ‘070’ ‘080’ ‘090’으로 시작하는 11자리가 일반적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IHS마르케트에 따르면 IoT 기기 수는 2017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275억 개였다. 2020년에는 403억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은 휴대 전화번호 100억 개를 추가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의 인공 쇠고기 만든 스테이크 요리. AP뉴시스

이제는 인공고기 시대... 먹거리 혁명, 밥상을 뒤집다

식탁 위 '테슬라' 꿈꾸는 스타트업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물성 고기, 인공고기 제조업체 '비욘드미트(Beyond Meat)'가 지난 3일(현지시간) 나스닥거래소 상장 첫날 돌풍을 일으켰다. 첫 거래일에 주가가 공모가인 주당 25달러(약 2만9450원) 대비 무려 163% 폭등한 65.75달러에 마감해 상장 첫날 거래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미국 1,2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과 리프트가 올해 기업공개(IPO)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첨단 기술은 기존 서비스와 제품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 식품을 기술의 힘으로 크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은 차량공유보다 인공고기에 미래를 바꾸는 힘이 더욱 있다고 보고 여기에 베팅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인공 식용참치를 개발하는 핀레스푸드와 배양육 스테이크를 만드는 알레프팜 등 '식탁의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소재 스타트업인 핀레스가 생산하는 참치는 바다를 본 적이 없다. 핀레스는 실험실에서 참치로부터 세포를 채취해 연구실에서 이를 배양한다. 3주가 지나면 식용참치가 나온다.

인공고기 제조업체 '비욘드미트' 나스닥 상장 첫날 163% 폭등

핀레스푸드, 실험실서 참치 배양 연말부터 고객 대상 판매 추진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 배양육 쇠고기 스테이크 첫선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등 장점 고객 거부감·비싼 가격은 숙제

핀레스는 올해 말 인공 식용참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튀김과 어묵 등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때때로 시식회를 가졌다. 마이크 셸던 핀레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처음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슈퍼마켓 선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소에서 배양한 고기가 아직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핀레스푸드가 만든 인공 식용참치.

사진제공 핀레스푸드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배양육 쇠고기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알레프팜은 이르면 2021년에 자사 스테이크를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오는 2023년까지 일반 소매매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적인 식품과 농업기업들도 인공고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와 세계 1위 곡물업체 칼길 모두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 펄피스미츠에 투자하고 있다. 펄피스미츠는 닭과 오리, 쇠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타이슨은 세계의 단백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칼길의 소냐 로버츠 벤처 투자 부문 사장은 "우리는 인공고기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

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인공고기는 전통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공동설립자와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창업자도 펄피스미츠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 임파서블푸드는 지난해 버거킹과 손잡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시험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가 임파서블푸드에 대한 1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인공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업체들은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첫째, 고객들이 축산 농가에서 사육한 고기 대신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인공고는 재래식 고기보다 훨씬

싼 비싸다. 핀레스가 참치를 배양하는데 파운드당 400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는 고급의 약 20% 수준이다. 반면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의 수산물 공급업체인 브라운트레이딩이 공급하는 참치는 도매가격이 파운드당 8-12달러였고 레스토랑에는 19달러에 팔리고 있다.

인공고기 업체들은 고객의 거부감과 높은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전자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에 가까이 돈을 낼 사치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 즉 이들은 '식탁의 테슬라'를 노리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인공고기 지지자들은 식품산업의 새 기술이 참다람쥐 등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오염수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식량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인공고기는 기존 축산업에 비해 토지와 물 사용을 9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도 지난해 인공 배양식품에 대한 규정을 공동으로 정비하기로 하는 등 정부도 새로운 산업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0년산 위스키를 24시간 만에 '뚝딱'

엔들리스웨스트, 식물·효모서 분자 추출 나무 훈제·향신료 등 재료 추가없이 재현



미국 스타트업 엔들리스웨스트가 생산한 인공 위스키 '글리프(Glyph)'. 사진제공 엔들리스웨스트

곡물과 오크통, 물, 토양과 기후, 장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화학적으로 변화하고 오랜 세월을 거친 뒤에야 명주(名酒)가 탄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 '엔들리스웨스트(Endless West)'는 최첨단 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런 전통적인 증류와 양조 공정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려 한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이 신문이 소개했다.

엔들리스웨스트의 공동설립자이자 최고 기술책임자(CTO)인 매던 추아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를 찾았다. 당시 그는 빈티지 와인이 너무 비싸

차마 이를 구입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열광적인 와인 애호가이자 바이오 분자 전문가인 추아는 무엇이 와인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지 생각하게 됐다. 값비싼 술이 어떤 분자 구조인지 밝혀내고 이를 재현하면 값싸면서도 단기간에 빈티지 제품과 같은 술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착안해 낸 것이다. 이에 그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2016년 엔들리스웨스트를 창업하고 본격적인 실험에 나섰다. 가장 먼저 개발에 착수한 것은 오크통에 10년 이상 보관한 것과 같은 위스키를 재현하는 것이다. 발효와 증류 등 기존 공정과 전혀 다르게 실험실에서 약 24시간 만에 빈티지 위스키

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다.

엔들리스웨스트는 자사의 인공 위스키 생산에 대해 북극의 얼음과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은 만드는 방법이 다르지만 같은 분자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 리 엔들리스웨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와인은 반드시 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규제 측면에서 장애물이 있어서 위스키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엔들리스웨스트는 분자를 식별하는 시험을 거둬 빈티지 위스키를 재현하기 위해 중요한 분자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위스키 향기와 나무 훈제, 향신료와 바닐라 등의 풍미를 내기 위한 재료를 추가하지 않

고도 분자 수준에서 이를 실현한 것이다. 이들은 식물이나 효모로부터 분자를 추출했다. 이미 개발에 성공한 인공 위스키 '글리프(GLYPH)'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일부 주류매장과 바(Bar)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병당 35-50달러(약 4만-6만원)다. 엔들리스웨스트는 고객과 음식점 등이 인공 위스키라는 아이디어와 제품 그 자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 리 CEO는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위스키 분자 프로필을 완벽하게 스캔하는 것"이라며 "아직 신속하게 분자를 정확히 스캔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號 ‘데이터 경영’… 계열사 협업 실시간 수치화

하나은행 A임원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KEB하나은행 콜라보 현황’을 체크한다. △하나금융 ‘자산리퍼럴’ △하나캐피탈·저축은행 ‘여신연계’ △하나카드 ‘개인 신규 유치’ △하나생명 ‘방카슈랑스’ △하나자산신탁 ‘연계영업’ 등 협업 실적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진도률과 목표 달성 중간 실적은 ‘00%’로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 이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의 방향을 설정한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최근 본격 가동된 ‘콜라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3월 11일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수치화해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주는 ‘콜라보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김정태 회장이 3연임 이후 ‘데이터 경영’을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그룹 경영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결과물이다.

◇‘데이터 금융회사’의 기틀 ‘콜라보 플랫폼’ 가동 = 하나금융의 콜라보 플랫폼은 개인업무 시스템을 통해 관계사 손님을 소개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콜라보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관계사 간 콜라보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립해 디지털화하고, 수기로 관리되던 성과 측정도 자동화했다.

대상은 KEB하나은행, 하나금융,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카드, 하나생명, 하나자산신탁 등 6개 주요 계열사다.

6개 계열사 ‘콜라보 플랫폼’ 가동 업무 프로세스 정립 ‘디지털화’ 실시간 실적 등 자동 성과 측정 고객 서비스 연계 협업 시너지

30년 영업 철학 녹여낸 ‘김 회장’ 집권 1·2기까지 조직 통합 방점 콜라보 마스터 플랜 완성 초읽기 전 직원 ‘영업의 달인’ 육성 발판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타 계열사에서 소개받거나 소개해 판매한 실적 건수와 액수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뜬다. 목표 도달률과 진행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여수신부터 주식·펀드·신탁 등 분야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중앙영업그룹



에서 타 영업본부까지 흘러간 추이도 파악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손님에게는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탁월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는 협업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정보안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계사 간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매월 11일 ‘콜라보 데이’… 콜라보 문화 확산 = 김 회장은 단순히 실적 경쟁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즐기면서 실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콜라보 데이’를 만들었다. 그룹의 이름인 ‘하나’가 2개 겹치고, 하나의 계열사가 또 다른 계열사를 만나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달 ‘11일’에 개최한다. 콜라보 데이는 계열사 협업 주제를 선정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날이다.

이달 콜라보데이는 토요일인 11일을 피해 전날인 10일 금요일에 ‘캐피탈 자동차금융 연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 대출 연계’를 주제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하나은행 역삼지점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년 ‘영업통’ 철학 녹여낸 계열사 시너지 강화 방안 = 김 회장은 금융지주 부사장 겸 하나대투증권 사장, 은행장을 거치면서 뛰어난 영업실적을 올렸다. 김 회장은 자신의 철학을 담아 전 계열사 직원들을 ‘영업의 달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콜라보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김 회장에게는 현재 제주 3·4위 경쟁에 머무르는 하나금융을 리딩뱅크 반열에 올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 시급한 과제는 비은행 계열사 강화다. 하나금융은 13.7% (1분기 기준)에 미치는 비은행 계열사 순익 비중을 KB·신한금융 수준인 30%까지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회장이 집권 1기와 2기 통합에 방점을 뒀다면 3기에 접어든 지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금융은 2015년 은행·금투 복합점포 신설(1단계), 2018년 11월 그룹 콜라보 플랫폼 구축(2단계)에 이어 올해 3월 가동한 콜라보 데이터 시각화(3단계)를 통해 ‘콜라보 마스터 플랜’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2022년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나경연 기자 contest@



김광수(첫줄 왼쪽 8번째) NH농협금융 회장이 10일 충북 청주 농협청주교육원에서 농협은행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을 마치고 신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수 회장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역량 필수”

농협銀 신규직원 특강 실시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 열정과 근성으로 업무에 임하라”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10일 충북 청주 소재 농협청주교육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 김 회장은 “농협은행 신규 직원에게 들

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신규 직원에 갖춰야 할 덕목(열정, 근성, 전문성, 겸손)에 대해 강의했다. 음악 및 고전 이야기, 칼세이건(냉전 말기, 핵겨울의 위험성을 경고한 미국의 천문학자)의 일화 등 다양한 사례를 흥미롭게 풀어가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특강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 후에는 연수활동 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신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금융권 직원들에게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이라며 “항상 끊임없이 학습하며 열정과 근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앞으로 농협금융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신한금투 ‘초대형 IB’로… 신한금융, 6600억 출자

비은행권 수익 기반 확대

신한금융이 신한금융투자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키우기 위해 6600억 원을 출자했다. 비은행권 수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신한금융은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출자 승인을 결의했다. 재원은 신한금융이 자체 보유한 유보자금과 향후 신종자본증권으로 마련할 200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 4조 원(2018년 말 3조 3600억 원)을 넘게 돼 초대형 IB로 지정된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 어음) 진출도 가능해졌다. 현재 초대형 투자

은행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뿐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만기 1년 이내 발행 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레버리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대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금융은 이번 증자로 GMS(고유자산운용)사업부문, GIB(글로벌자산신탁)사업부문 등 그룹 매트릭스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룹 관계자는 “증권업계 대형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신한금투는 그룹의 자본시장 키플레이어로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그룹 퇴직연금 사업부문장 후보로 신연식 신한은행 상무를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열린 그룹 경영 회의에서 그룹의 퇴직연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단위로 편제된 퇴직연금 사업을 매트릭스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사외이사진도 대거 교체했다. 이윤재 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허용학 퍼스트브리지스트래티지 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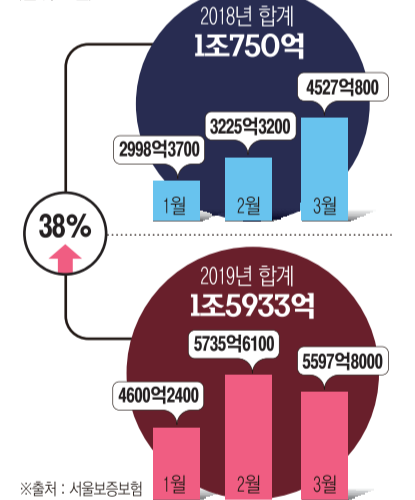
박선현 기자 sunhyun@

고가아파트도 ‘깡통전세’ 공포 전세보증보험 가입 38% 증가

서울보증, 1분기 실적

전당 평균보증금액 1.8억
총 공급 50% 늘어난 1.6조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판매현황 (단위: 원)



서울보증보험의 올 1분기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올해 1분기 전세금보증보험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총 가입 건수는 85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가입 건수는 6219건으로 올해 38%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1분기 보증 공급금액은 1조5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7500억 원) 대비 50% 이상 늘었다. 평균보증금액도 늘었다. 올해 한 건당 평균보증금액은 1억8537만 원으로 1억7285만 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약 1250만 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주택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고가 아파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은 지난해 11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29건에서 11월 254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2월 316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에는 소폭 하락한 3003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지역 집값 내림세가 지속한 기간과 일치한다. 한국감정원은 9일 서울 집값 하락세가 26주째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

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구가 내림세를 주도했다. 서울연구원 7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가 평균 전세값 7억70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7억4000만 원, 용산구 6억1000만 원 등이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측은 고가 아파트 ‘깡통전세’ 우려와 관련해 “고액전세임차인만 따로 분석한 자료가 없다”며 “건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과 가입 기준이 다르다. HUG 상품은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보증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과 주요 지방 7억 원 이상 아파트 전세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 상품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정용욱 기자 dragon@



5만원 대로
5G를 무제한!
5직 유티플러스에서만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에서 [5G 요금제]까지

4/3부터 6/30까지

프로모션 기간(19 4/3~6/30) 중 선택약정할인으로 '5G스페셜' 요금제를 가입한 동시에 'LTE 요금 그대로 약정할인' 프로모션을 가입할 경우, LTE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78' 요금제를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프로모션 기간 내 '5G스페셜' 요금제 가입 시 '19 12/31 까지 데이터 무제한 제공. 약정기간은 24개월 유지.



삼성전자, 10년간 직원 1만8500명 늘어 '증가폭 1위'

10대 그룹 핵심 계열사 분석
 근속연수 최다 증가는 신세계
 SK이노, 연봉 가장 많이 올라
 현대중, 급여 720만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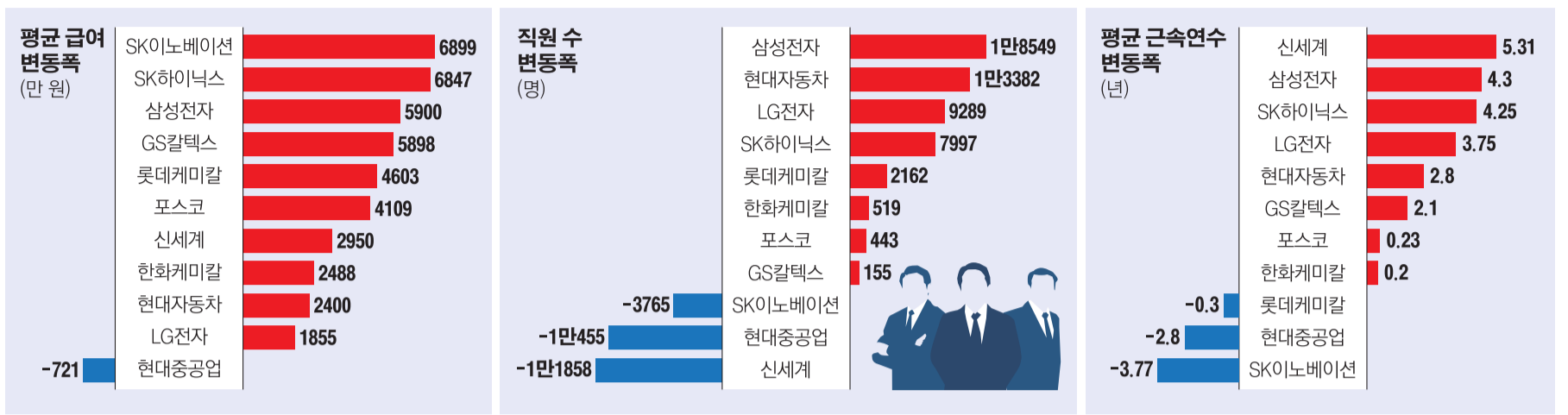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0년간 주요 10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서 연봉이 가장 크게 오른 기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신세계는 각각 직원 수와 평균 근속 연수를 가장 많이 늘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최근 10년간(2008~2018년) 제출된 10대 그룹 핵심계열사 11곳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은 직원 임금을 평균 3930만 원가량 인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고비를 극복한 후, 매년 일정 수준의 임금을 올린 데 따른 결과다.

11곳 중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 평균 급여액은 10년 동안 무려 6899만 원 올랐다. 성별로도 남(7938만 원)·여(5675만 원) 연봉 인상 폭이 선두를 차지했다.

2위는 같은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6847만 원)였다. 2012년 SK그룹에

10대그룹 핵심 계열사 10년간의 변화 ※2008~2018년 기준, 순서는 순위



※출처: 금융감독원

인수된 이후,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성과급 등의 변수가 연봉 수준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삼성전자(5900만 원) △GS칼텍스(5898만 원) △롯데케미칼(4603만 원)이 뒤를 이었다. 다만 현대중공업(-721만 원)은 유일하게 평균 급여액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원 수와 평균 근속 연수 부문에서는

나란히 범 삼성가가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10년간 11곳 중에서 가장 많은 1만 8549명을 채용했다. 다만 성별로 보면 남성 직원은 2만768명 늘어났지만, 여성 직원은 오히려 2219명 감소했다.

뒤이어 직원을 많이 고용한 기업은 △현대자동차(1만3382명) △LG전자(9289명) △SK하이닉스(7997명) △롯데케미칼(2162명) 순이었다. 이들은 남녀 직원을 모두 늘렸다.

반면 신세계(-1만1858명)와 현대중공

업(-1만455명)은 오히려 직원 수가 1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신세계는 2011년 시행한 기업 분할이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중공업은 앞서 언급한 '불황 장기화'와 '사업 재편'이 직원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사업주회사를 겸한 현대중공업(주)와 현대중공업(주)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 기계로 분할됐다"면서 "이후 당사 사업보고서에는 현대중공업에서만 일하는 직원

수만 표기된다"고 직원 수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평균 근속 연수의 경우, 신세계(5.31년)가 선두에 등극했다. 이어 △삼성전자(4.3년) △SK하이닉스(4.25년) △LG전자(3.75년) △현대자동차(2.8년)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SK이노베이션(-3.77년) △현대중공업(-2.8년) △롯데케미칼(-0.3년) 등은 10년간 직원 근속 연수가 줄어들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유럽서 날개 단 i30 100만 대 판매 돌파

'i 시리즈' 누적 300만 대 전망

국내서는 판매가 지지부진한 현대자동차의 i30(사진) 시리즈가 유럽에서는 날개를 달았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유럽 전략형 모델인 i30가 유럽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

i30는 유럽연합(EU) 28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32개국에서 올해 1분기 1만5557대가 판매됐다. 2007년 6월 유럽서 첫선을 보인 이후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6858대로 집계됐다.

i30는 현대차가 유럽 공략을 위해 폴크스바겐의 골프와 경쟁 모델로 선보인 전략 차종으로 현대차 체코 공장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1세대 모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42만318대가 팔렸고, 2세대 모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3만1612대가 판매됐다. 2016년 출시한 3세대 모델은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가 15만4928대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는 모터스포츠의 영향력, 고성능 차량 수요 등의 인기 요인을 반영해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 첫 번째 모델로 i30 N이 탄생했다. 최근에는 1.6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한 'N 라인'도 선보였다.

i30 N은 출시 첫해인 2017년 1154대, 지난해 6923대에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3036대가 팔려 누적 판매 1만1113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i30 시리즈가 유럽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는 이유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디자인, 성능까지 꾸준히 개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i30를 비롯한 i10, i20, i40 등 'i 시리즈' 전체 누적 판매도 연중 3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경연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 부담 5년째 늘어"

올해 73조5000억 추정
 지난해 세율 인상 영향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73조5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 간 관

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반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는 법인세 비용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한경연이 지난해 코스피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순이익은 2.0%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며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고, 2019년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올 1분기 주요 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경영 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어린이들이 홀로봇 'LG 클로이'를 이용해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홀로봇 'LG 클로이' 패키지 판매

LG전자는 16일부터 인공지능 홀로봇 'LG 클로이'를 CJ오쇼핑에서 '아들과딸북클럽 LG 클로이' 패키지 상품 형태로 판매한다. LG 클로이는 △5인치 LCD 디스플레이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 △아동용 콘텐츠 업체인 '주식회사 아들과딸'의 교육 콘텐츠 등을 탑재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용 로봇과 반려 로봇이 돼 주고 어른들은 인공지능 스피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동화를 읽어주거나 장가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랩을 해달라고 하면 신나는 비트의 음악을 재생하며 춤을 추기도 한다. 표정과 음성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아이들과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반려로봇이 된다. 아들과딸북클럽 LG 클로이 패키지 가격은 36개월 약정 기준 월 5만9000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신개념 TV에 반했어요" 1만 명 복적

삼성 TV 팝업스토어 '새로보다' 밀레니얼 세대, 세로 화면 열광 "모바일 콘텐츠 크게 볼 수 있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옥림빌딩. 20~30대들로부터 주목받는 유명 명소가 많은 가로수길에 위치한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1일 문을 연 라이프스타일 TV 팝업스토어 '새로보다'의 풍경이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지금까지 주말 기준 누적 약 1만 명이 방문했다.

총 4개층, 약 700㎡ 규모의 새로보다'는 모바일 콘텐츠에 최적화된 세로 화면이 특징적인 '더 세로(The Sero)', 제품의 심미적 가치에 초점을 둔 '더 세리프(The Serif)', 집안을 갤러리로 만들어 주는 '더 프레임(The Frame)' 등의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제품으로 꾸며졌다. 또 유명 아티스트와 SNS를 통해 유명해진 갤러리아트리에, 보난자커피, 킨키로봇, 슬로우파마씨, 일광전구, 세븐브로이 등 개성 넘치는 브랜드와의 다양한 협업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갤럭시S10으로 촬영한 사진 출력서비스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울 가로수길에 문을 연 라이프스타일 TV 팝업스토어 '새로보다'에 밀레니얼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은 '더 세로'였다. 김슬비(여·21)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세로를 처음 봤다. TV 화면이 세로여서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규원(여·33) 씨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이나 영화를 주로 보는 편"이라며 "더 세로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더욱 크게 볼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덧붙였다.

밀레니얼 세대 외 다른 연령층도 더 세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모(여·43) 씨는 "실제로 보니 디자인이 예쁘다. 특히 나만의 휴식 공간에 더 세로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

을 했다"고 호평했다. 다른 TV 대해서도 방문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8) 씨는 "TV는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볼품없는 가구라고 평소에 생각했다"며 "더 세리프와 더 프레임이라면 집안 인테리어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 호응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앞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TV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새로보다에 전시된 더 세로, 더 세리프, 더 프레임의 가격은 각각 189만 원(43형), 219만 원(55형), 339만 원(65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밥캣, 동남아 딜러 콘퍼런스

두산밥캣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소형 건설기계 딜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11개국 딜러와 두산밥캣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밥캣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품 및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딜러들과 공유했다. 두산밥캣의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와 판매 실적이 우수한 딜러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세션도 가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SK, 中 AI 두 달 만에 또 투자

AI 이미징 업체 '블랙 세사미'
SK차이나, 1억 달러 펀딩 참여
3월엔 AI 반도체 6억 달러 투자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 가속



SK가 중국 인공지능(AI) 디지털 이미징 업체인 '블랙 세사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단행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차이나가 투자한 '블랙 세사미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진행한 1억 달러(117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라운드 펀딩에 참가했다. SK차이나는 SK그룹의 중국 지주사로 현지에서 투자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SK그룹 관계자는 "SK차이나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펀딩에는 SK차이나를 비롯해 레전드 캐피탈, 델타 캐피탈, 차이나 머천트 캐피탈, 상하이 자동차(SAIC Motor) 등이 참여했다.

SK차이나가 투자한 블랙 세사미 테크놀로지는 2016년 설립된 AI 디지털 이미징 기술 업체로 중국 상하이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AI 칩 및 알고리즘을 만든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이 회사는 세부적으로 △조명제어·ISP 이미지 프로세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자율주행 인식 △안면 인식 △AI 칩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 세사미 테크놀로지 투자는 최근 SK그룹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활발한 '미래 기술' 투자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SK차이나는 3월에도 SK하이닉스와 함께 중국 호라이즌로보틱스의 반도체 사업에 6억 달러(약 68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호라이즌로보틱스는 자동차와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사다.

SK는 이번 투자로 미래 기술을 확보한 동시에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SK는 완벽한 현지화를 추구하라는 최태원 SK회장의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에 따라 중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SK종합화학이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SINOPEC)과 합작해 만든 중화석화가 시노펙 산하 중국 우한 소재의 정유설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SK는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중국 정유공장의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영국 원전의 70%가 위치한 셀라필드 원전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두산밥콕, 英 원전 해체 프로젝트 2兆 계약

20년간 폐기물 처리 설비 공급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 등 7곳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인 두산밥콕이 영국 셀라필드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기간과 금액은 20년간 약 2조2000억 원이다.

이번 계약은 단일 발주 방식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진행될 원전 해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기업을 사전에 선정하는 장기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두산밥

콕은 기계 및 전기 시공 등의 역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셀라필드사가 운영하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주의 셀라필드 원전산업단지에는 영국 원전의 70%가 위치해 있다.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인 '롤더홀'을 비롯한 7개 원전의 해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앤드루 코혼 두산밥콕 CEO는 "셀라필드 원전산업단지의 해체 사업에서 두산밥콕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철도 차량기지 내 태양광 발전소 추진

GS파워, 코레일과 이달 협약
시흥·병점·낙산 등 설치 전망

GS파워가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손잡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파워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시흥 차량사업소, 병점 차량기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GS파워는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공사 시흥 차량사업소, 병점 차량기지, 낙산연수원(후보지) 등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양사는 이달 내 최종안 확정,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GS파워 관계자는 "협약서 최종안을 두고 코레일에서 내부 사업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 협정을 짓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GS파워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설비 구축에 나선다.

시설은 시행사인 GS파워의 투자로 마

련된다. 이후 GS파워가 20여 년간 이를 운영, 한국철도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설비의 발전 용량 등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약을 협의 및 심의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S파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변경 사항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며 "협약이 완료되고 협약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GS파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GS파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작된 2012년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현재 RPS 제도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향후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SK이노, 친환경 소셜 벤처 협업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소셜 벤처와 협업을 통해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친환경 소셜 벤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DBL(Double Bottom Line) Insight Week'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 최초로 커피팩(커피찌꺼기) 기능성 활성탄 소재를 개발한 '도시광부' △해조류를 활용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고 차세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마린이노베이션'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로 친환경 패션을 선도하는 '몽세루' 등 친환경 원료와 폐자원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정인보 SK이노베이션 SV추진단장은 "향후 소셜 벤처들과 사업적 협력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경영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을 함께 실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삼성 반도체 협력사 안전교육 강화

삼성전자가 10일 용인시 기흥구에 반도체 협력사를 위한 환경안전 분야 전문 교육시설인 '삼성전자 DS부문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를 열고 협력사의 환경안전 역량 향상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흥·화성사업장 인근 건물에 5개층 규모의 환경안전 아카데미를 조성했다. 강의실과 VR체험장, 근골격센터,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전문가의 강의와 체험형 교육을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환경안전 아카데미는 법정 필수과목과 직무별 실습 인증, 4단계 역량 향상 과정과 같은 실무 커리큘럼뿐 아니라 CEO대상 세미나,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협력사의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1, 2, 3차 2300여 협력사 임직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연간 20만 명 교육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가구업계 빅3 女임원 고작 4명... 두꺼운 '유리천장'

가구업계 '빅3'를 다 합쳐도 여성 임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객이 절대적인 가구업계에서 유리천장이 견고한 셈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샘, 현대리바트, 퍼시스의 임원 수는 각각 37명, 16명, 11명이다. 그 중 여성 임원은 각각 2명, 1명, 1명으로 나타났다. 한샘의 여성 임원은 김은희 상무, 최원미 상무다. 현대리바트와 퍼시스는 각각 최경란 사외이사과 박정희 상무를 여성 임원으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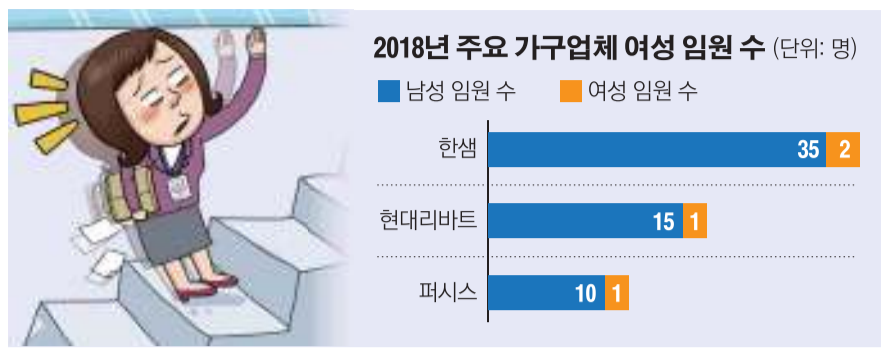
2017년과 비교해 한샘과 퍼시스는 여성 임원이 늘어나긴 했다.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한샘은 9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이 없었고, 퍼시스 역시 7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은 0명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빅3 업체의 여성 임원을 비율로 따지면 64명

한샘, 전체 임원 37명 중 2명
현대리바트·퍼시스 각 1명씩
여성 임원 비율 6%에 그쳐

女, 평균 급여액 男보다 적고
평균 근속연수도 더 짧아

중 4명으로 6%에 그친다.

여성 임원이 극소수인 동시에 남녀 임금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의 여성 영업직은 근속 연수가 평균 2년 11개월로 남성 영업직보다 5개월 더 길다. 하지만 1인 평균 급여액은 3900만 원으로 남성보다 800만 원 더 적었다. 현대리바트의 여성 영업관리직 근속연수는 4.04년으로 남성보다 3년 적고, 1인 평균 급여액도 남



성보다 1500만 원 적은 4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퍼시스는 남녀 근속연수와 1인 평균 급여액이 3개 업체 중 가장 크게 차이 났다. 여성 관리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6.94년으로 남성보다 3년가량 적고, 1인 평균 급여액은 3800만 원으로 남성보다 1600만 원 적었다. 여성 생산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3.69년으로 남성보다 10년가량 적고, 1인 평균 급여액은 2400만 원으로 남성보다 1700만 원 적었다.

재직 중인 여성 비율도 낮게 확인됐다. 한샘의 경우 관리직·연구직군에서 정규직 수는 남녀 각각 805명, 553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영업직은 624명, 270명이었고, 기술직은 335명, 1명이었다. 생산직

도 각각 211명, 8명으로 나타났다. 현대리바트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남녀 수는 각각 598명, 216명으로 남자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가구업계의 유리천장과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한샘의 경우 젊은 여직원 비율은 동종 업계 대비 높지만, 연차가 많이 찬 여성 승진자가 아직 많이 없어서 여성 임원 비중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재직 비율과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가구업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이라 생산직에서 남녀 재직 비율 차이가 있다"며 "임금 차이는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영업직에서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가 높음에도 연봉이 더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과급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1분기 '신작 가뭄' 게임업계 울상

게임업계가 올해 1분기부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업계 전체적으로 신작이 적은 상황에서 기존 게임의 실적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1분기 영업이익이 536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다만 매출액은 9498억 원으로 3%가량 소폭 늘었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등 기존 PC 온라인 게임과 함께 모바일 게임 'AxE(엑스)', '오버히트', '다크어벤저 3', '메이플스토리M' 등의 신작이 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의 양대 명절인 춘절 시즌 업데이트 성과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비슷한 실적을 나타내며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영업이익 759억 원, 매

출액 358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24% 감소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2641억 원에서 올해 1988억 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PC대표 흥행작인 '리니지'는 리마스터 업데이트와 정

넥슨, 영업이익 4%↓ 실적 추춤
엔씨, 영업이익·매출 동반 하락
NHN·넷마블, 소폭 하락 전망
2분기 대작 출시...반등 기대감

액제 폐지 등으로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이 부진을 겪으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펠어비스의 성장은 눈에 띈다. 펠어비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5.3%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1308억 원으로 73.2% 증가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PC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 콘솔버전 '검은사막 엑스박스 원' 등의 플랫폼 확대를 통해 다각도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곳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NHN은 13일, 넷마블은 14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작 출시 지연과 신작 흥행이 잠잠한 점, 기존 서비스의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에는 이렇다할 흥행 신작이 없었고, 업계 전체적으로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올해 기대작들이 2분기에 순차적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현대중주 '5G 사업' 협력 MOU

5G 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공동 개발

KT는 10일 현대중공업지주와 서울 광화문 East 빌딩에서 '5G 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로봇 사업부(현대로보틱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기반 시스템 사업뿐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HiFactory) 등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2월 MWC2019와 3월 '2019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전'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년간의 협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5G Connected 로봇 개발 △서비스 로봇 개발(호텔, 커피로봇 등)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의 공동 개발 △머신비전 및 AI 분야 공동 R&D △공동 개발 솔루션의 상품화 및 공동 영업 추진을 협력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시장을 함께 개척하고 글로벌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는 5G, AI, 클라우드(Cloud) 등 통신 인프라와 ICT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대중공업지주는 로봇,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제공해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에 협력한다.



황창규(왼쪽) KT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5G 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T

황창규 KT 회장은 "스마트팩토리는 5G B2B 시장의 핵심 분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지주의 우수한 로봇 기술과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동 개발한 5G, AI 기반 스마트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사업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세계 최고 통신 기술을 가진 KT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수준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국내 광고상 휩쓴 'LG U+ CSR 캠페인'

시각장애인 지원편 등 2편
'올해의 광고상' 그랑프리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온라인 부문 최고상 수상



LG유플러스 착수장애인 지원 CSR 캠페인 영상 중 한 장면.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CSR 캠페인으로 국내 광고상을 제패했다고 12일 밝혔다.

LU유플러스에 따르면 CSR 캠페인 시각장애인 지원편과 착수장애인 지원편은 한국광고학회 주관 '제 26회 올해의 광고상' 그랑프리, 한국광고주협회 주최 '제 27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온라인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작년 11월 열린 국내 최고 권위 광고제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동영상 광고 부문 금상 수상, 국내 최고 권위 디지털 광고제 '2018 앤어워드(& Award)'에서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이번 '올해의 광고상'과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 수상한 CSR 캠페인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는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조현영 씨가 7개월된 아

들 유성이를 키우며 경험한 불편함을 U+ 우리집AI로 극복해 가는 모습을 그렸다. 작년 2월 공개 이후 현재까지 누적 131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착수장애인 대상 AI스피커 및 IoT 지원 CSR 캠페인 영상 '괜찮아, 아빠가 할 수 있어'도 함께 수상했다. 7년 전 사고로 착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원준 씨가 U+우리집AI와 U+AI리모컨으로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선사, 높은 평가를 받았다.

CSR 캠페인 외에도 LG유플러스는 한국

마케팅협회 주관 '제 7회 대한민국마케팅 대상'에서 디지털 고객만족도 분야 SNS 우수기업으로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고객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생산과 적극적인 활동,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희진 LG유플러스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은 "앞으로 5G 상용화로 달라지는 일상, 더 행복한 일상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리는 따뜻함을 고객에게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KT, 서울·부산에 '5G IT 에지 클라우드' 구축

MEC 기반 지연없이 서비스 연결
최대 10초 빨리 서비스 이용 가능

KT가 5세대 특화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5G IT 에지 클라우드(Edge Cloud)'를 서울과 부산에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KT 에지 클라우드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에 기반해 미디어,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지연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은 물리적으로 데이터 전송 구간을 줄여 초연결, 초저지연을 실현해 주는 5G 핵심 기술 중 하나다.

기존에는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신호와 데이터를 모두 처리했던 만큼 시간이 걸렸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용자의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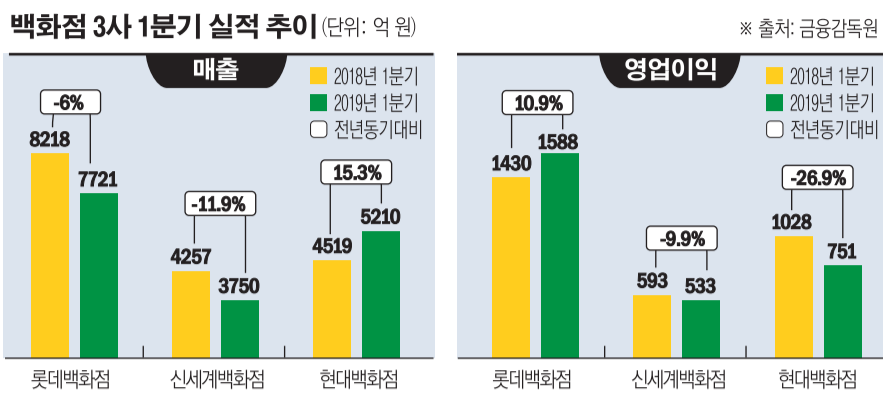
이터 트래픽이 수도권 중양통신센터로 전송되며 지연이 생겼다. 실시간 미디어 콘텐츠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서울 여의도 미디어센터로 거쳐야 해 추가 지연 시간이 발생했다. 반면 모바일 에지 컴퓨팅은 이용자와 가까운 기지국, 통신센터에 데이터 서버를 배치해 물리적 거리를 줄인다. KT는 캐시서버나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버 등으로 컴퓨팅 설비를 내장해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서울·부산·대전·제주 등 8곳에 5G 에지 통신센터를 구축했다. 여기에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5G IT 에지 클라우드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10초 가량 지연이 줄어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김병근 기자 nova@

“명품 선방했지만...” 백화점 3사 ‘우울한 1분기’

롯데백 전년대비 매출 -6%
 동남아 효과 영업익은 10.9%
 신세계, 인천점 철수 악영향
 매출 11.9%↓ 영업익 9.9%↓
 외형 커진 현대, 영업익 급락
 명품 벗어나 매출 다각화해야



명품도 백화점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1분기 주요 백화점 3사의 실적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명품 판매 실적이 늘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절벽을 넘어서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1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롯데백화점은 77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 낮은 수치다. 해외패션 및 생활가전 상품군 중심으로 국내 기존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신장했지만, 지난해 평창 라이선싱과 관련한 일회성 직매입 매출(451억 원)이 반영되며 작년 1분기 대비 줄었다. 동남아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하고, 비용 절감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은 15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신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소비경기 약화와 온-오프라인 시장 간의 경쟁 심화됐지만, 해외 사업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며, “판관비 절감 노력과 더불어 동남아 시장에 대한 경쟁력 및 e커머스 사업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9%, 9.9% 줄어든 3750억 원, 533억 원을 기록했다. 인천점 철수 영향이 컸다. 지난해까지 신세계가 운영하던 인천점은 올해 1월부터 롯데백화점 인천 터미널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점포는 지난해에만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알짜 점포였다. 다만, 인천점을 제외한 매출은 5.4% 늘었다.

이 밖에 ‘SSG닷컴’ 출범에 따라 온라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SSG닷컴은 올해 3월부터 신설법인으로 분할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명품 MD 비중이 높은 대형점포 위주로 고신장세를 보였지만, 인천점 폐점에 따라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은 낮아졌다. 올해 1분기 순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한 5210억 원, 영업이익은 26.9% 줄어든 751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6.4% 감소한 6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면세점 사업의 부실이 이익률 급감의 원인이다. 면세점 매출이 반영되며 전체 매출은 끌어 올렸지

만, 사업 초기 투자 비용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 면세점은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1569억 원, 영업손실 236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오픈한 대구 아울렛 및 김포아울렛과 천호점의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지출 역시 높아졌다.

부분별로는 명품과 리빙, 아동스포츠의 고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여성 패션과 잡화 등은 부진했다.

주요 백화점 3사 모두 명품 매출 성장이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백화점 명품 매출은 매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명품 매출은 각각 18.5%, 20.02%, 19.1% 성장했다. 국내 백화점의 평균 매출 신장률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명품에 치우친 성장 구조 탈피를 위해 매출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 소비력이 높은 고객만을 위한 쇼핑 장소가 되고 있다”면서 “명품은 소비가 한정돼 있고, 대체로 이익률이 낮아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단종상품도 다시 한번” 뉴트로 붐타고 재출시

오리온, 치킨팝 3년 만에 부활
 아디다스 단종 모델 한정판 등



새로운 복고 바람, ‘뉴트로’ 트렌드의 확산에 힘입어 단종됐던 제품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물론 패션업계까지 역사에서 사라진 제품들이 다시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품 외식업계에서는 단종된 먹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리온은 지난 2월 ‘치킨팝’을 기존 대비 10% 증량해 3년 만에 재출시한 데 이어 지난 달 마켓오 다쿠아즈도 5년 만에 다시 내놨다.

치킨팝은 실제 닭강정과 같은 매콤 달콤 중독성 강한 맛과 팝콘처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바 있다.

프랑스 정통 디저트 ‘마켓오 다쿠아즈’는 2007년 첫 선을 보였으나 2014년 생산을 중단했다. 오리온 다쿠아즈는 프랑스 정통 디저트를 처음 양산화한 제품으로 최근 프랑스 디저트에 대한 젊은 층의 호응이 커지면서 다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아이스크림도 뉴트로 열풍으로 되살아난 사례가 적지 않다. 롯데푸드는 2011년 단종된 별난바에 탄산캔디를 적용해 현대적으로 맛을 업그레이드한 ‘별난바 톡톡’을 선보였다. 초콜릿 안에 탄산캔디를 적용, 맛과 재미를 동시에

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겐다즈는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돼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았던 ‘피넛버터 크런치’ 아이스크림을 상시 판매 제품으로 다시 출시했고, 롯데제과는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밍키의 군것질’이라는 아이스크림 ‘젤리서스 구미 당기는 구미바’로 재해석해 내놨다. BBQ는 2년 전 출시했다 사라진 메뉴인 갈비통닭의 판매를 올해부터 재개했다. BBQ는 영화 ‘극한직업’의 인기로 따라 기존 갈비통닭을 ‘극한 왕갈비 치킨’으로 개명하고 판매 중이다.

패션 시장에도 복고 바람이 불면서 재출시 움직임이 거세다. 아디다스는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국내 러너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올트라부스트’ 러닝화의 최초 버전인 오리지널 모델을 다시 내놨고 나이키도 ‘에어맥스 95’를 다시 선보이면서 판매처에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여름 햇과일 한자리에

현대백화점은 19일까지 전국 15개 점포 식품관에서 ‘H-스위트(H-SWEET) 여름 햇과일 할인’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H-스위트(H-SWEET)’는 일반 과일보다 2~3브릭스(Brix) 더 높은 고당도의 과일만을 선별한 현대백화점 식품관 과일 브랜드이다. 행사 기간 수박·참외·블루베리·애플로마토 등 H-스위트 과일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중 진출한 햇반... “14억 입맛 잡는다”

CJ제일제당 “3년 내 1000억 매출”

CJ제일제당이 중국에 ‘햇반’을 정식 출시하며 중국 즉석밥 사업에 본격 나선다.

12일 CJ제일제당은 “‘햇반’을 출시해 국내 즉석밥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을 이끈 것처럼 중국 상품밥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화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 ‘햇반’의 맛·품질로 14억 중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최근 간편형 HMR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밥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문화인 만큼 소비자들의 ‘밥’에 대한 관심이 높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 R&D가 집약된 ‘햇반’의 맛·품질이라면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햇반’을 정식으로 론칭했다.

CJ제일제당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에 ‘햇반’을 빠르게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제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했다.

상하이시 황포구 난징동루에 위치한 홍보관에서는 중국 식문화에 맞춰 ‘햇반’을 활용해 1일 3식 식단을 제안하는 ‘데마식탁’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햇반’ 시식 체험이 이어졌다. 밥을 소비하는 식문화인 만큼 중국 현지 언론에서 홍보관을 찾은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 상하이 리스지 스토어에 마련된 햇반 홍보관에서 중국 소비자가 햇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홍보관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인 티몰(T-mall) 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중국의 Z세대가 ‘햇반’의 주 소비층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간편하게 즐기는 햇반컵반’·‘아침에 딱 맞는 햇반죽’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쌀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국에 ‘햇반’ 전용 생산기지를 확보해 3년 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즉석밥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중국에서 ‘비비고 왕교자’를 성공시킨 것처럼 ‘햇반’으로 중국 상품밥 시장 공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유산균 사업 서두르는 식품기업들

‘5000억 유산균 시장을 잡아라.’

국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405억 원에 불과했던 유산균 시장은 2017년 2173억 원 규모로 커졌다. 홍삼에 이은 건강기능식품 구입량 2위가 바로 유산균이다.

이처럼 유산균 시장이 성장하자 제약사 뿐만 아니라 식품기업도 관련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화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는가 하면, 신규 모델을 발탁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한국야쿠르트도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MPRO’를 새롭게 론칭했다. 한국야쿠르트는 ‘MPRO’로 기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통합하고 소비자 니즈



사진제공 한국야쿠르트

에 맞는 제품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야쿠르트는 브랜드 론칭에 맞춰 신제품 ‘MPRO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MPRO 프로바이오틱스 아연’도 내놨다. 두 제품 모두 한국야쿠르트의 특허 유산균 ‘HY7715, HY7301’이 담겼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신제품 ‘BYO 20억 생 유산균’의 라인업을 확대했다. BYO

한국야쿠르트 ‘MPRO’ 신규 론칭 CJ제일제당 ‘BYO...’ 라인업 확대

20억 생 유산균 맨·우먼·키즈 3종을 출시한 가운데, 브랜드 모델로 배우 지진희를 새롭게 발탁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특허 유산균인 ‘CJLP 133(피부유산균, 7개국 특허)’과 ‘CJLP 243(장유산균, 9개국 특허)’은 위산과 유사한 산도(pH)에서 발견한 식물성 유산균으로, 위산을 견디고 장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독자 개발한 ‘4중 코팅 기술’을 적용해 유산균의 생명력을 높였다.

풀무원농촌의 유산균 전문 브랜드 풀무원프로바이오틱스는 너츠 3종, 곡물 3종과 복합 유산균을 더한 드링크 요거트 ‘매일 아침 든든너츠’를 지난 9일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귀리와 아몬드 가 함유돼 눈길을 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펀드 해외 진출 쉬워진다는데... 업계 반응 '시큰둥'

금융당국, 운용사 판매 채널 확대 '亞 펀드 패스포트' 추진
업계, 법·제도 마련 안돼 혼란 가중... 글로벌사 경쟁도 부담

금융당국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물론 오히려 선부른 국내 펀드 시장 개방으로 업계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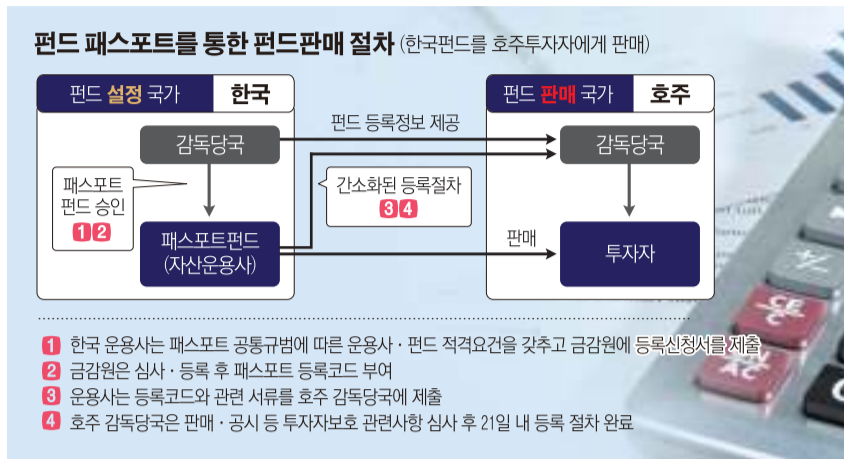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4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국내 투자자는 투자 목적에 맞는

다양한 해외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운용사는 해외 판매 채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본과 호주, 태국은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지만,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산운용업계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자칫 '인방은 내주고 해외시장 경쟁에서 치이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12일 "결국 운용사의 펀드 경쟁력이 문제인데, 최근 주목받는 인프라 등 대체투자 펀드는 호주 맥쿼리나 일본 노무라 같은 해외 운용사들이 이미 해외시장에서 입지가 두터워 그들의 펀드를 뛰어넘는 매력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면서 "국내 자산을 담는 펀드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

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장은 작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모펀드 시장 자체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경쟁한 글로벌 운용사와 경쟁해야 하는 것도 국내 운용사로서는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전체 펀드설정 금액은 2014년 말(377조

원) 대비 174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92%의 증가분(160조 원)이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갔고, 공모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6.9%(14조 원)에 그쳤다. 이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비중은 2014년 말 4대 6에서, 지난해 말 6대 4로 역전됐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힌 회원국이 없는 데다,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운용사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업계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한 운용사 임원은 "회원국마다 금융당국에 판매 등록하는 절차나 펀드의 판매 채널 확보를 위한 절차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도 못 했고, 패스포트 제도가 지향하는 (펀드 등록의) 편의성을 갖추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최대주주 바뀐 이엑스티, 300억 CB 발행

신약개발 등 30개 사업목적 추가
조달 자금 250억 신사업 사용 예정
부채비율 90%까지 올라갈 듯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엑스티가 30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3월 이엑스티가 주총에서 밝힌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엑스티는 9일 이사회를 열고 300억 원 규모로 2회 차 CB를 사모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채의 이율은 표면과 만기 각각 5%씩이며 전환가격은 9일 종가보다 1.85% 높은 4074원, 납입일은 29일이다. 전환청구 기간은 2020년 5월 29일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이며 홍콩계 투자금융그룹 SC로이(Lowy)와 조은저축은행이 투자자로 나섰다. 조달 자금 중 5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나머지 250억 원은 신규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엑스티는 2004년 설립된 건축 구조물 지지 기초공법 개발과 관련된 건축·토목·

플랜트용 기초·지반분야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2017년 12월 SPAC 합병장상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엑스티는 설계·시공·장비·재료를 아우르는 15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최근 4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2015년 연결기준 매출 250억 원에서 지난해 386억 원으로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등락이 있지만 매년 30억~70억 원대의 흑자를 이어갔다.

회사는 외형적인 성장 외에 재무 측면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 외부 차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됐으며 2회 차에 앞서 2015년 8월 처음으로 17억 원의 1회 차 CB를 발행했지만 작년에 모두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자본금으로 전환됐다. 이에 부채비율은 2015년 39.6%에서 지난해

15.6%까지 낮아졌다. 다만 이번 2회 차 CB 발행 대금이 납입되면 부채비율은 90%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엑스티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2월이다. 회사 창립인 송기용 전 대표가 장원테크 외 5인에게 보유 지분 60%를 55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납입이 3월 이뤄지고 같은 달 주총에서는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 임원진의 물갈이가 있었다. 주목할 대목은 30개에 달하는 새로운 사업목적 추가였다는 점이다. 의약품 제조와 신약개발, 방송연예, 부동산 매매·분양, 레저·스포츠 용품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엑스티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CB 발행을 추가한 사업과 결부 짓는 시각이 많다. 회사 측이 250억 원의 용도를 신규 사업으로 밝힌 만큼 아무래도 새롭게 추가된 사업과 연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크다.

회사 관계자는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납입이 종료된 상태도 아닌 만큼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증시 불안 반사이익 '리츠株'가 뜬다

작년 공모가 대비 이리츠코크렙 8%·신한알파리츠 26% 상승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의 우려로 출렁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부동산투자 '리츠' 주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리츠코크렙은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중 한때 상장 이후 최고가인 5510원을 기록하다가 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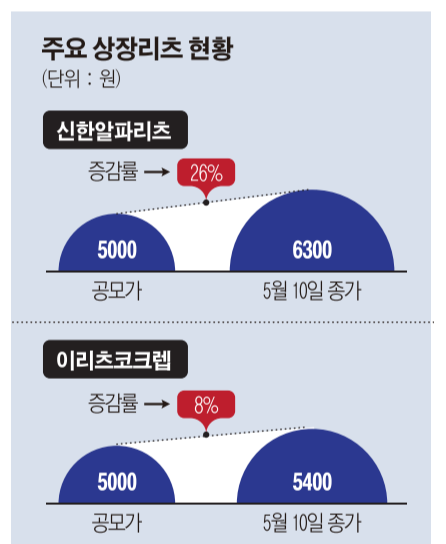
신한알파리츠는 8일 1.9% 상승한 데 이어 9일 장중 한때는 연중 최고가(6390원)를 기록하고서 6290원에 마감했다. 10일에는 다시 6300원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리츠의 최근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지난해 상장 당시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는 이리츠코크렙이 8.0%, 신한알파리츠는 26% 상승한 상태다.

리츠는 대형 빌딩과 상업시설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임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티에일이뉴코아 아울렛 매출 상위 매장 3곳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리츠이며, 신한알파리츠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



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리츠코크렙은 상장 이후 총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 1주당 각각 118원(시가 배당률 2.6%), 137원(2.3%)의 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상 현금 배당 수익률을 3.6%였다.

신한알파리츠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8일 각각 보통주 1주당 116원(2.0%), 137원(2.3%)의 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공모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5.1%다.

고대영 기자 kodae0@

종목장세에 '액티브펀드' 석달 수익률 '인덱스' 추월

국내 증시에서 종목장세가 펼쳐지면서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펀드를 역전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9일 기준 국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 주식형 액티브펀드 530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을 1.48%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인덱스펀드 371개의 수익률은 평균 -0.7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중소형(4.59%), 섹터(2.43%), 일반(1.23%), 배당(0.81%) 등 대부분의 액티브펀드가 수익을 냈고 테마(-0.04%)만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인덱스펀드는 코스피200(-0.28%), 섹터(-0.46%), 기타(-1.24%) 등 모두 손실을 입었다.

패시브(Passive) 펀드로도 불리는 인덱스펀드는 시장 대표 지수나 업종 지수를 추종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좇는 반면 액티브펀드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종목 선정을 통해 지수 이상의 성과를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액티브펀드는 인덱스펀드에 비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인덱스펀드가 19.62%인 반면 액티브펀드는 4.8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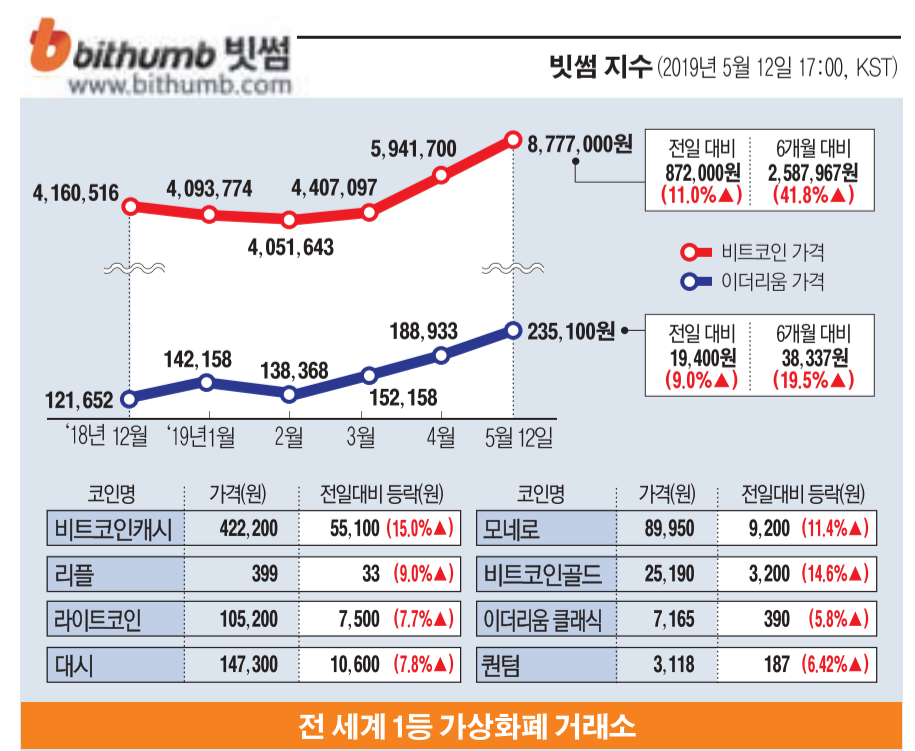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최근 액티브펀드의 약진을 대형주의 부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대체로 대형주 강세 국면에서는 인덱스 펀드의

성과가, 대형주 약세 국면에서는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우수했다"며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부진하면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역시 지수를 좇는 인덱스펀드에 비해 액티브펀드에 유리한 환경이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의 9월 기준 설정액은 52조1059억 원으로, 연초 54조1805억 원 대비 2조750억 원 감소했다. 한동안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성격의 환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액티브펀드 설정액이 4.48% 줄어든 23조3457억 원을 기록했고, 인덱스펀드는 3.30% 감소한 28조7602억 원을 기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흥행불패 '공공기관 이전지'... 다음 수혜단지 어디?

대표적 이전 지역 세종시, 아파트값 5년 새 98% 올라
12개 기관 옮긴 전북 혁신도시도 상승률 30% 넘어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앞둔 '만성지구' 청약 경쟁률 ↑
인천 제2청사 화재 갖춘 '루원시티' 관심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거리다. 공공기관이 새롭게 이전하는 곳은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며 각종 인프라가 빠르게 들어서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중

사자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수요 증가로 지역 시세 또한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다. 현재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5개의 공공기관(2019년 1월 기준) 등이 이전한 세종시의 경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3㎡당 아

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광역자치단체 출범 해인 2012년 12월 621만 원에서 5년 후(2017년 12월) 1230만 원까지 올라 98%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27.7%(1016만 원·1298만 원)으로 상승률만 놓고 보면 세종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공기관 인근 단지들의 매매가 상승폭도 높다.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들어선 '세종 다샵 센트럴시티' 전용 8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016년 4월 3억9000만 원(13층)에 거래된 데 이어 2019년 4월 6억3700만 원(15층)에 거래돼 최근 3년간에만 63.3%

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 5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전북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내 들어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1단지'는 전용 84㎡가 2016년 10월 2억5500만 원(11층)에서 2019년 2월 3억4300만 원(12층)에 팔려 3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근 전주시 구도심인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위치한 A단지가 2016년 11월 2억5500만 원(17층)에서 2019년 3월 2억7900만 원(19층)으로 9% 상승한 것과 비

교하면 꽤 높은 수치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들이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올해 이전을 앞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수혜지인 전주 만성지구 서지 단해 8월 공급한 '전주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 테라스'는 1순위 청약에서 5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 제2청사 화재로 인한 루원시티에서 지난해 10월 공급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4.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빈집' 골칫거리로

서울 빈집 9만5000호
강남 아파트 가장 많지만
대부분 거래 중인 '일시적 빈집'
전체 30%는 실제 관리 필요
정비사업 해제 후 폐가로 변해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 빈집이 방치돼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출구 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에 나서자 빈집이 늘고 더 오래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 발생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라는 정책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빈집이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정책 요인까지 더해진 셈이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약 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15년 7만9000호에 비해 1만6000호 증가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만4000호), 강서구(8000호), 송파구(6000호)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지역서 빈집이 많이 확인된 것은 정비사업 또는 신축 과정에서 미분

양·미입주가 발생했거나, 거래 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서울 빈집은 일시적인 빈집이 대다수다. 정부구역 지정 후 건축 행위가 중단되고, 세입자 및 소유자의 퇴거가 이뤄지면서 빈집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실제 관리가 필요한 빈집은 전체의 30% 수준이다.
관리가 필요한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확대·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폐가로 변하면서 지역사회 해체와 주거 환경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건축물 대장을 연결해 노후 단독·

다세대 빈집을 추정한 결과, 3900여 건이 집계됐다. 지역별로 성북구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 328건, 용산구 291건, 동대문구 271건, 노원구 259건 등 도심과 동북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 내 해제지역 빈집 밀집지역 5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빈집이 188건 확인됐다. 5개 구역은 빈집이 많은 순으로 사직2구역(72호), 성북4구역(41호), 육인1구역(30호), 도봉3구역(24호), 충신1구역(21호)이었다. 해제지역 빈집은 정비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조사된 빈집 188건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 불량 주택이 전체의 76%였다. 또 73% 이상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물이 쌓이는 등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서 플랜트 1.3조 수주

KIND 지분투자... 현지 최대규모 석유화학 건설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폴란드에서 9억9280만 유로(원화 약 1조2880억 원) 규모의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주 성공은 해외 우수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력·기술력에 KIND의 지분투자를 통한 정책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해외건설 팀코리아'의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사가 유럽연합(EU)에서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해외수주 역사의 한 획을 그어졌다.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주로 자동차, 타이어, 전자·전자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이나 업무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공사를 수주해 왔으나, 업계는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를 계기로 진출 공정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Police) 지역에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생산시설 및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으



11일 폴란드에서 열린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계약식에서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발주처 PDH 폴스카 S.A.의 안드제이 니에벤스키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다.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는 프로판가스에서 PDH공정을 통해 프로필렌을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필렌을 에틸렌과 결합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로, 폴리프로필렌 생산량은 연간 40만 톤에 달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러시아에서 메탄올 플랜트 기본설계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수주에도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EPC 경쟁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셋째 주, '고덕파라곤2차' 등 전국 6825가구 분양
5월 셋째 주 전국에서 6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 부산 동래구 명

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세종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경기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1차'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2곳으로

경기 용인시 동천동 '수지동천꿈에그린', 부천시 원미동 '이안더부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리뉴빌퍼스트클래스(A1-6)' 등이다.
건본주택은 6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경기 성남시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렌더스원',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 등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16 (목)	5/17 (금)	5/15 (수)			
5/13 (월)	접수	경기	시흥시	장곡동	시흥정현A11(국민임대)1.2.3순위(-5/15)	접수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중포3지구대원컨티넨탈2차더테라스 1순위	
			하남시	학인동	위례신도시우미린1차(A3-4b) 2순위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A40) 2순위		
			부천시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1순위(당해지역)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오션파라곤 1순위
	발표	광주	북구	신용동	광주첨단2지구대성베르릴		세종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1순위	
		충남	천안시	청양동	청양코오롱하늘채 2순위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5/14 (화)	접수	경기	고양시	중산동	일산2차아이피리(민간임대) (-5/23)	오른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중흥S클래스센텀시티(A11-1)	
			부천시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1순위(기타지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AA14)
			충북	청주시	모충동		청주모충리트릴로체(공공분양)	경남	진주시	강남동	진주일신스위트포레강남
	발표	세종	세종시	다정동	행정중심복합도시2-1M6(국민임대)기온마울7		충북	청주시	운동동	동남지구우미린에듀포레(C2)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A40) 1순위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중포3지구대원컨티넨탈2차더테라스 2순위	
5/15 (수)	접수	경기	부천시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2순위	접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오션파라곤 2순위
			경남	양산시	동면	사승다산데시앙(B3) 1순위		세종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2순위
			경남	양산시	동면	사승다산데시앙(B4) 1순위					
	발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경기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2단지)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497곳 중 100곳 불시 방문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락 가능성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및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 △흙막이 등 가시시설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은 3일 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 방식이 아닌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다.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31일 전라관에서 시작해 내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현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부당하고 아닌데 ‘부당하고’ 현수막...대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주장 시위...벌금형 확정 기업·관공서 대응력 강화에 주목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 없는 비방 현수막에 시달리는 관공서나 기업 등의 대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양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고무효 확인 소

송을 냈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양 씨는 2017년 4~11월 구청과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하고 규탄한다’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씨의 현수막 및 피켓 문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 2심은 “양 씨는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부가세 착복 주장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 관련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30일간 설치할 수 있다. 크기와 문구에 제한이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무기한 게시할 수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블랙이글스’ 에어쇼 12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9 서울·성남지역 예선 대회’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한국사무소 서울에 문 연다

오늘 개소식...농업외교 역량 강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가 서울 종로에 문을 연다.

FAO는 1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한국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다. 협력연락사무소는 국제 농업분야에서 각국 정부와 FAO 사이의 정책을 조율하는 등 가교역할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력연락사무소유치로 농업·식량 외교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북한 등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FAO는 협력연락사무소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을 한국인으로 뽑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 FAO 협력연락사무소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가 13일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사진은 이개호(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이 3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유치에 나섰지만 인사 등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다 3월 FAO측과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여름휴가, 항공권 싼 6월에 떠나라

스카이스캐너, 최근 2년 분석 휴가시즌 직전에 비교적 저렴 인기 여행지 10곳 중 6곳 하락

본격적인 여름휴가 준비 기간이다. 성수기인 여름은 항공권 가격이 비싸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념일 뿐 예외가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 시즌 직전인 6월에 떠나는 항공권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 여행 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가 인기 도시 10곳의 최근 2년(2017년, 2018년)간의 6~8월 항공권 요금 수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2017년 6월 대비 2018년 같은 달 왕복 항공권 요금이 낮아진 곳은 상위

10개 도시 6곳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대비 2018년 같은 달 항공권 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도시는 일본 오사카(-21%)다. 그 다음으로는 △태국 방콕(-15%) △베트남 다낭(-13%) △대만 타이베이(-12%) △일본 도쿄(-5%) 순이었다. 이는 올해 6월도 인기 여행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떠날 수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 여행 수요가 높은 도시라도 항공권 구매 시점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살 수 있다.

지난해 6월 항공권이 전년 같은 달보다 저렴한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꼽힌다. 수요가 비교적 주춤한 성수기 직전이라는 것과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대,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인한 공급 확대 등이다. 김소희 기자 ksh@

서울시, 중고차 딜러 양성

장안평 車센터서 교육 13명 배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기여 기대

서울시는 장안평에서 신규 매매 딜러 양성교육을 통해 13명의 딜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안평은 ‘자동차애프터마켓의 메카’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규 매매 딜러 양성교육은 장안평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개설됐다. 서울시에 서 장안평지역 자동차산업과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이하 자동차정보센터)에서 중고자동차 신규 매매 딜러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장안평에서 올해 9월과 11월에 신규 매매 딜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국민게임 '프렌즈타운' 탄생시킨 짧지만 굵은 역사



① 카카오게임즈 kakaogames



2016년 1월 엔진 출범

7월 카카오게임즈 사명 변경

11월 에어(AIR) 북미유럽 판권 계약

2017년 9월 마음골프 자회사 편입

11월 통합 카카오게임즈 출범

12월 3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8년 2월 프린세스 게임즈 출범

2019년 3월 라이프엠엠오 출범



'카카오게임' 발판 삼아 2016년 설립

국내 대표 게임사로 성장

글로벌 멀티플랫폼 게임 기업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카카오의 게임 전문 회사이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업계 대형 업체들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영향력이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된 게임 플랫폼 '카카오게임'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12년 7월 세상에 공개된 카카오게임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친구를 자유롭게 게임에 초대할 수 있는 기능에 힘입어 오랜 기간 황금기를 누렸다. 5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게임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해왔으며, 특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법한 이른바 국민 게임들이 탄생하는데 기여했다.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며, 카카오게임 역시 정체기를 겪었다. 2016년 초에는 당시 카카오의

친구 초대 기능으로 황금기 누려 500여개 게임사와 파트너십 작년 매출 4208억·영업익 472억

최고게임책임자(CGO)로 부임한 남궁훈 현 카카오게임즈 각자 대표가 본격적으로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일구기 위한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6년 초 카카오의 게임 사업은 카카오 게임을 운영 중인 모기업 '카카오'와 PC 게임에 주력하던 회사 '다음게임',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던 회사 '엔진'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각자 대표는 당시 엔진의 대표이사이자 카카오의 최고게임책임자로서 발 빠르게 사업 구조 재편에 들어갔다.

우선 2016년 4월 엔진과 다음 게임을 합병했고, 3개월이 지난 7월 사명을 카카오 게임즈로 변경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 11월 카카오의 게임 사업 부분까

지 흡수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이를 통해 설립 첫해 매출 약 1013억 원, 영업이익 약 10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 매출 약 2013억 원, 영업이익 약 386억 원을 거두며 성장했다. 지난해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매출 4208억 원, 영업이익 472억 원을 기록하며 탄탄한 실력을 갖춘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체질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파트너사의 게임을 카카오게임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기존 주력 사업을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와 운영, CS 등까지 맡아 챙기는 직접 퍼블리싱 사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모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의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을 위해 프렌즈게임즈도 설립했다.

여기에 신사업 개척의 전초기지가 될 자회사 라이프엠엠오까지 더해 글로벌 멀티어 게임사로 비상하기 위한 삼각편대를 갖추고, 국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린세스 커넥트'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3위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카카오게임, 다음 게임 등 모바일과 PC를 망라한 유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프렌즈타운', '프렌즈레이싱',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리:다이버)',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인기리에 서비스하고 있다.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부터 높은 성장세를 거두고 있다. 특히 퍼블리싱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계현 각자 대표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블레이드2',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회사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최근 선보인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리:다이버)'의 경우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앞으로 더 기대할만한

캐릭터 육성 '패스 오브 엑자일' 日 시장 겨냥 '도라에몽' 게임 등 내달 PC·모바일게임 라인업



라인업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PC게임으로는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핵 앤슬래시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Path of Exile)'이 대기 중이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깊이 있는 스토리, 강렬한 타격감과 액션, 무한대에 달하는 빌드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 현존 핵 앤슬래시 게임 중 최대 규모의 콘텐츠 등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PC 온라인 게임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바일게임으로는 대형 MMORPG '달빛조각사', 오픈월드 MMORPG '테라 클래식' 등의 신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시장의 문도 두드린다. 캐주얼 장르에 특출한 개발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캐릭터 '도라에몽'이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일본 현지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계획이다.

위치기반 기술 활용 야외 활동 즐거움 극대화

'게이미피케이션' 선구자로

카카오게임즈는 미래를 준비할 키워드로 '게이미피케이션'을 내세우고, 다양한 영역에서 신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와 경쟁, 보상, 성취감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게임즈가 준비 중인 게이미피케이션 사업들은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공동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회사 '라이프엠엠오' 출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서비스 연구 돌입

이를 위해 올해 3월에는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자회사 라이프엠엠오가 출범했다. 라이프엠엠오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토대로 여러 신기술을 융합해 우리 일상을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그 시작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을 활용

해 걷기, 자전거 등 야외 이동 활동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프로젝트R(가칭)'을 개발하고 있다. 이후 남녀노소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년간 그 어느 게임사보다 숨가쁘게 달려왔고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며, "2018년까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했다면, 올 2019년부터는 내실을 다져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임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신한은행이 KBO 리그를 후원합니다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이승엽
KBO 홍보대사 이 승 엽

이제 당신이 마운드에 오를 차례!

지금 신한 SOL에서 신한 MY CAR 프로야구 예/적금 가입하고
프로야구 관람과 시구의 기회를 잡으세요!

신한
페스티벌
2019

신한 페스티벌! 야구 관람의 기회를 잡아라, 1등은 시구의 행운까지!

아래의 상품 신규 및 컨텐츠 이용으로 받은 응모권으로 신한 페스티벌 이벤트에 응모
응모권 획득 방법 | (1) 상품가입 : 프로야구 예/적금가입, MY CAR 한도조회, 주택청약 가입
(2) 신한 SOL 로그인 > 신한은 야구다 > 쏘픽 참여/ 쏘타임 참여/ MY 구단 지정시

신한 페스티벌 경로 | '신한 SOL' 로그인 ▶ 씨니존 ▶ 신한은 야구다 ▶ 시구시타 페스티벌
프로야구예적금 가입경로 | '신한 SOL' 로그인 ▶ 씨니존 ▶ 신한은 야구다 ▶ KBO재테크

1등	시구권 + 테이블석 (1인 2매)	1명
2등	응원석 (1인 2매) + GS상품권 (1만원권)	30명
3등	단체관람석 (1인 2매)	200명
Bonus	야구예매권 (1인 2매) 매월 추첨	50명

* 1등 시구권 + 테이블석(1인2매)의 경우 LG, 두산은 구단 사정상 제공이 불가능하여 대체상품 테이블석(1인4매)로 제공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1064호 (2019.04.18~2019.06.30)※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한 페스티벌 일정은 KBO 공식일정을 따르며 KBO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재채권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3만원 초과 경품 제공간에 대하여는 2016.7.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MY CAR 프로야구 예적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K뷰티 힘입어 동남아 인기...할랄 인증도 획득”

국내 여성청결제 시장 선두주자...최원석 질경이 대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열대기후 위생용품 수요 높아 의약품 허가 까다로워 화장품으로 판매...수출에 걸림돌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물리적으로 연내 코스닥 상장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도전해 볼 생각이다.”

코넥스 기업 질경이는 2010년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시장 매출의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9일 서초구 질경이 본사에서 최원석(사진)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여성 청결제 시장 규모는 1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질경이가 참여하면서부터 시장도 매년 성장했고, 현재는 4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질경이가 2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경이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상태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3대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MUI)로부터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인도네시아 흡소핑 업체와의 판매 계약도 이달 들어 최종 체결했다.

최 대표는 “질경이는 K뷰티의 열기가 뜨거운 동남아 지역에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며 “더운 열대성 기후가 지속되는 지리적 특성상 얼굴과 몸, 구강 등에 대한 위생용품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할랄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 10월부터 모든 판매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새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내 여성청결제 최초로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인증을 받은 점을 좋은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근 중국 헬스케어 유통기업 포웨스트(FOREWEST)와의 협약을 통해 현지 온라인몰과 약국, 병원 등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시장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외국에 비해 의약품과 의약기기 등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 엄격한 국내 사정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질경이 제품은 아직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여성청결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운 의약기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브랜드의 시장 활동이 수월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질경이는 이와 별개로 무항생제 질염치료제를 연구 중이며 현재 2상을 완료, 3상을 준비하고 있다.

최 대표는 “좋은 국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근 2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은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닥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연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전 상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0@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투자, 문화가 되다’ NH證券 슬로건 발표

정영채 사장, 임직원과 토크콘서트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과정 지향의 행위가 돼야 합니다.”



정영채(사진) NH투자증권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투자, 문화가 되다’를 공개했다. 정 사장은 10일 오후 여의도 본사 4층 아트홀에서 브랜드 비전 선포행사에서 고객들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투자가 문화가 되다’는 브랜드 슬로건을 채택, 새로운 브랜드 비전 ‘인베스트먼트 컬처 크리에이티브’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정형화된 틀 대신 직원 참여형 토크콘서트와 스탠딩 파티의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게시판

허연수 대표, ‘식품안전’ 대통령 표창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는 10일 제18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오대균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선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대균 기후대응실장을 기후대응이사(임원급)로 임명했다. 오대균 신임 기후대응이사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석사(자원공학) 및 박사(응용지구과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에너지공단에서 목표관리실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승호 교수, 세계비만대사학회 이사

최승호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최근 세계비만대사학회(IFSO) 이사 및 아시아 태평양지구 대표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최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유승후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윤광식 △디지털소통기획과장 김정렬 ◇서기관 승진 △기획혁신담당관실 이해정 △예술정책과 김선아 △공연연통예술과 김도영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지역문화정책과 한보화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미디어정책과 신재광 △체육정책과 김지희 △체육정책과 김현목 △관광산업정책과 최학수 △관광개발과 임성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 파견 박재영 ◇과장급 전보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 서기웅 △유통물류과장 김호성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김정각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서울강동우체국장 권호준

“CJ헬로 명예사원이예요”



CJ헬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초청행사’를 10일 상암 본사에서 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가족 사연 접수 및 한마음 협의회 선포 과정을 거쳐, 사원부터 팀장에 이르는 다양한 직급과 소속의 27개 구성원 가족 팀(총 74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명예사원증을 내밀며 환하게 웃고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파키스탄 찾은 황각규 부회장 “신남방 정책 거점으로”

롯데 현지 사업장 둘러보고 식품·유통 진출 확대 밝혀

황각규(사진 가운데) 롯데지주 부회장이 미래 전략 사업 확보차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롯데지주는 황 부회장이 8일부터 12일 까지 2박 5일의 일정으로 파키스탄 카라치와 라호르를 방문해 현지 사업장을 돌아봤다고 12일 밝혔다. 파키스탄은 세계 6위 규모의 인구(2억 명)를 가진 대규모 시장으로 14세 미만의 인구가 30%를 차지해 식·음료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출장기간 중 황 부회장은 카라치에서 식품회사인 롯데 콜손과 LCPL(롯데 케미칼 파키스탄)을 돌아보고 라호르로

이동해 음료회사인 롯데 약타르 음료와 롯데 콜손 라호르 공장을 둘러본 후 현지의 파트너사 및 관계자들을 만났다. 또, 현지 재래시장과 현대적 쇼핑몰을 방문해 최근 파키스탄의 변화상에 대해 확인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진출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9일 루이지애나에서 진행된 170만 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ECC 및 EG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황각규 부회장이 파키스탄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파키스탄 시장의 중요성과 롯데그룹 경영진의 현장경영



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각규 부회장은 “파키스탄은 신남방 정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잠재성이 아주 큰 중요한 시장”이라며, “파키스탄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투자할 것이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대상 김현용 가족

전공자 최우수상 안주현 학생팀

오투기가 11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4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의 가족요리 축제다.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요리 전공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요리전공자 부문 경연도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가족 100팀과 요리 전공 부문 50팀, 총 150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요리대회 참가비와 행사를 주최한 오투기의 출연금을 더해 총 600만 원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 또 오투기를 통해 심장병 수술을 지원받은 어린이와 가족초청 행사도 열렸다.

한편, 이날 치열한 경쟁 끝에 1등 대상인 오투기상의 영예는 김현용 가족이 차지해 500만 원 상당의 주부가전 교환권과 트로피를 받았다. 오투기상 1가족을 포함하여 으뜸상 2가족, 사랑상 3가족 등 총 6가족에게 12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이 주어졌다.

요리전공자 부문에는 한국조리과학고등



11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제24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안주현 학생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또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각각 전달됐다. 이 밖에 행운상 1팀에는 300만 원 상당의 흥행 여행 상품권이 제공됐다.

행사에 참석한 오투기 관계자는 “요리를 통해 가족 간의 화목과 밝은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부음

▲김성환 씨 별세, 이상호(치과원장)·최준성(전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전 SK이노베이션 재무실장) 씨 부부상 = 12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1·20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32-460-9408

▲신경자 씨 별세, 지역식(전 동양유업 대표이사) 씨 부인상, 지준환(클립스㈜ 대표이사)·상환(㈜바이탈엠 이사)·동환(㈜바이탈엠 이사) 씨 모친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문영석 씨 별세, 배순덕 씨 남편상, 문창기(㈜이디야 대표이사)·창숙·자원(사업)·기원(사업) 씨 부친상, 구태영·오인숙·정소영 씨 시부상, 변종호(사업) 씨 장인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2-3010-2230

▲권길자 씨 별세, 심혜숙(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팀 부장) 씨 모친상 = 12일,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31-832-4474

▲명준식 씨 별세, 명노진(명세식품㈜ 대표이사) 씨 부친상, 김난옥 씨 시부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10분, 02-3010-2262

▲조경자 씨 별세, 김효찬(삼성엔지니어링)·수영(서울중앙지법 판사)·효엽(MBC 보도국 경제팀장) 씨 모친상, 조상준(부산지검 차장검사) 씨 장모상, 김민정(한국외대 교수) 씨 시모상 = 12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4일, 02-2258-5940

▲최원순 씨 별세, 박용희·용광·용호(승목업 총경리)·용원(㈜원앤원우드 대표)·용완(㈜파루엔 대표) 씨 모친상, 박장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씨 조모상, 송신국(진우상사 대표) 씨 장모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2-3010-2263

▲정성래 씨 별세, 정명철·건·이철(UOB선물 한국지점 대표이사)·원철 씨 부친상 = 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2-2227-7556

▲신순석(전 여수 축협중앙회 상무이사) 씨 별세, 신상훈(전 한국코퍼레이션 이사, 전 대한카누연맹 홍보이사) 씨 부친상 = 12일, 여수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61-688-4444

▲정희임 씨 별세, 조장성·강길·레·만승(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명자 씨 모친상 = 11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62-670-0036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아닌 新기술 논의할 때

빅데이터, AI, IoT, VR·AR 등 신기술 기반 유통 혁신이 등장하면서 소비행태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이미 전통시장의 판매 품목 대부분을 다루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시장을 이어줄 수 있다는 점은 전통시장에도 분명 기회가 됨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 글로벌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5000만 원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하남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개점 5일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남 코스트코에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자율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개점 일시 정지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하면서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논의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고, 면세점·복합쇼핑몰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스타필드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사회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대형마트 입점제한 및 의무휴업 효과는 불

분명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전통시장 수와 점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당 매출액은 2013년 이후 안정적인 추세에 있다. 또한,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연구팀의 경기·대전 지역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날에도 개인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의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고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유입 효과가 크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대체제가 아니라라는 점도 규제 효과가 불분명한 원인이 된다. E컨슈머가 전국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전통시장 방문 고객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오히려 전통시장에 손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30%가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규제효과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앞으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는 유통산업의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바뀐 지 오래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매출액이 2015년 32.8조 원에서 2018년 33.5조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에 반해 온라인과 홈쇼핑 등의 무점포 소매 매출액은 2015년 46.8조 원에서 2018년 70.3조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며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온라인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롯데 스마트픽이나 홈플러스 가상스토어와 같이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인 옴니채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통과 물류를 융합한 쿠팡은 이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신기술 기반의 유통 혁신이 등장하면서 소비 행태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활

용한 주문 환경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비교·검색해주고 VR·AR 기술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IoT 기술은 사용자 편의에 맞는 주문 및 배송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유통기업의 경우에는 실시간 물류 및 재고 관리와 효율적인 매장 관리가 가능해 이미 월마트나 아마존 등 글로벌 선도 유통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국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신기술 도입이 절대 전통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이미 전통시장의 판매 품목 대부분을 다루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시장을 이어줄 수 있다는 점은 전통시장에도 분명 기회가 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 등 규제 일반도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로 선회되어야 할 때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영어가 원래 영국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던가. 원래 영어는 영국 토착어가 아니었다. 로마가 영국 땅을 떠난 이후 로마제국의 남겨진 폐허를 지키기 위한 용병들이 갖고 들어온 언어다. 그 용병들은 영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북부 유럽의 게르만족이었다. 영어의 흥미진진한 성장사를 다룬 책이 멜빈 브래그의 '영어의 힘'이다. 이 책은 저자가 BBC라디오 방송에서 '영어의 여정'이란 이름으로 만든 25부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5세기부터 지금까지 영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 단계를 밟아온 것인가를 다룬다.

게르만족이 건너온 당시인 기원전 6세기 무렵 영국에는 유럽 북부에서 켈트족이 침입하여 영국에 정착하고 있었고, 이들을 브리튼족이라 부른다. 통상 영국의 원주민은 이들을 말한다. 게르만족이 영어를 들고 영국 땅을 밟았을 때 영국에는 앵글족, 색슨족, 주트족 등 최초의 부족들이 사용

하던 지역 언어가 있었고 이들 가운데 어느 언어가 우세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당시 켈트어가 다소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켈트어는 기원전 55년 카이사르(시저)의 영국 지배로부터 로마군이 449년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라틴어의 잔재가 켈트어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영어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 200~300년이 걸렸으며, 특히 영어의 강력한 경쟁력은 교활함 즉, 먹성이었다. 주변 언어를 무자비하게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영어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대략 100여 개가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대영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목록 가운데 예외는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온 세 단어(they, their, them)와 프랑스에서 온 한 단어(number)뿐이다.

영어가 차용한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독교가 영국에 전해졌고 아울러 교회에서 사용하던 라틴어와 라틴어 속에 들

어 있는 그리스어를 영어는 받아들인다. 엘렌, 미사, 비숍, 몽크 등과 같은 단어들 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교회가 영어에 기여한 바는 문자를 채택토록 한 것이다. 부유한 주교들은 로마에 가서 그림과 책 그리고 성인들의 유물을 갖고 왔는데, 이때 함께 들어온 것이 로마의 알파벳이다. "문자만이 언어를 보호할 수 있다. 문자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준다. 그리고 모든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로마자 알파벳은 고대 영어의 알파벳의 기초가 되고, 문자로 표시되기 시작한 영어는 성장의 날개를 단다.

영어는 바이킹족의 침략을 견뎌냈고 프랑스 침입도 이겨냈다. 설령 권력을 지배층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어는 오히려 침입자들의 언어를 차용해 풍성함을 더해갔다. 특히 영어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언어는 프랑스어다. 1066년 프랑스 노르만디 공국의 듀크 윌리엄에 의해 잉글랜드가 정

• 멜빈 브래그 '영어의 힘'

영어는 원래 영국 토착어가 아니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퐁스 도데 명언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기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대표작은 '별', '방앗간 소식', '사포'. 희곡 '아름의 여인'은 비제가 작곡해 유명해졌다. 자연주의 일파에 속했으나, 인상주의적인 매력 있는 작품을 세웠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40~1897.

☆ 고사성어 / 곡돌사신(曲突徙薪) 곡돌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미리 방지하라는 말. 한서(漢書) 광광전편(霍光傳篇)이 원전. 나그네가 집 주인에게 "곡돌의 구멍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땔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라고 충고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집에 큰 불이 났으나 이웃들의 도움으로 집을 다 태우지 않고 진화됐다. 집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이웃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고, 이때 한 이웃이 한 말에서 유래됐다. "곡돌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땔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나그네에게는 은택이 가지 못하고 머리 그슬리고 이마를 데며 불을 끈 사람은 상객이 되었군요[曲突徙薪無功 焦頭爛額爲上客耶]."

☆ 시사상식/우리 천장(Glass Ceiling) 직장 여성이 승진의 사다다리를 오를 때 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딪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비유한 말.

☆ 우리말 유래 / 도지개 틀다 괜히 몸을 이리저리 꼬며 움직인다는 뜻. 도지개는 틀이 가거나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 도지개를 사용해 활을 바로잡듯 몸을 비튼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 유머 / 서울 구경 서울 구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차림의 처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할머니가 한마디 했다. "나 같으면 저런 꼴 하고는 밖에 나오지 않겠구먼!" 할아버지가 거들었다. "입자가 저 정도면 나도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겠구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저수첩

"애들아,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아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자린고비 영감'은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귀한 굴비를 아껴먹어야 한다는 구두쇠 심보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막내는 굴비를 두 번 쳐다보다가 자린고비 영감한테 혼나기도 했다. 먹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굴비. 요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딱 새끼줄에 매달아 놓은 굴비 신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80%까지 선정했는데 앞으로 500%까지 뽑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예비당첨자는 기존 80명에서 500명까지 늘어난다. 해당 지역도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부동산 정책

등 소위 '핫'한 지역(투기과열지구)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무주택자들은 이 소식이 반가웠을까. 사실 무주택자를 우선한 청약제도는 작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당첨이 된다고 해도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격정이예요. 금융이 제한돼 있어 분

부동산 정책

양기를 생각해 작은 평형대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경기도 분양에 나선 A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만난 무주택자의 하소연이다. 견본주택에 가면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청약 당첨 기회만큼 절실한 것은 바로 돈이다. 강도 높은 금융 규제가 가속화하는데 청



서지희 사회경제부/jhsseo@

'자린고비' 부동산 정책

약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는 똥만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천장에 굴비를 보며 밥을 먹으라는 어린이 전래동화 '현실판'인 셈이다. "업계와 정부의 시각 온도 차가 크다는 걸 이 자리에서 느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나온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정부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속내를 감춰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더라도 시장의 아우성을 관망하는 듯한 말에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갖는다고 한다. 정부의 취지대로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의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이제 천장에 매달아 놓으려 굴비를 감았던 새끼줄을 풀 때란 얘기가.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경제는 하강하고 있다. 정치는 실종됐다. 외교 안보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악화된 대외 환경에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더해진 결과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경제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투자과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임금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올린 이유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비는 정체돼 있다. 생산과 투자는 급감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섰다. 버팀목인 수출도 5개월째 내리막이다. 경제성장을 저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1분기 성장률은 -0.3%였다. 말 그대로 '성장 쇼크'다.

일자리는 어떤가. 매년 30만 명 이상 늘던 취업자 수는 지난해 9만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 원이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사업에 81만4000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취업률은 16.8%였다. 83.2%는 정부 지원이 끊기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일자리 참여자의 69%가 노인이었다. 통계를 위한 1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는 방증이다. 경제활동 중체인 3040 고용이 18개월째 줄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게 일자리 현실이다.

정치는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여

데스크칼럼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장외로 나간다. 협치는 온데간데없다. '식물국회'가 된 지 오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한국당도 문제이지만 여권의 책임이 크다. 민생을 챙기다며 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에 정치적 이해가 걸린 선거법 등을 밀어붙여 난장판을 만든 건 민주당이다. 여권이 민생을 챙길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남북관계도 휘청거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는 1년 만에 원점 회귀한 모양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다 틀어졌다. 북한은 정상회담 제의에 미사일 발사로 답했다.

정치 경제 외교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게 없다. 이전 하나씩 풀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여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경청, 양보를 통한 협치가 절실하다. 경제정책의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 최악의 경제상황이 그 증거다. 좋은 지표만 골라 현실을 왜곡해선 곤란하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모든 여론조사서 과반을 넘긴 상황인데도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위기를 인정해야 극복도 가능하다. 출발점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다. 당장 소수성은 재고해야 한다. 이미 2년의 실험에서 실패로 판명났는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며 소수성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심각한 불통이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쓴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은 독일에서조차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온 터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피겔은 최근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값비싼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된 국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몇 년 뒤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북한문제도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정착은 정부의 책무이지만 원칙과 속도는 다른 문제다. 문 대통령이 밝힌 '완전비핵화-북미수교-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상상누각이다. 원칙을 무시한 과속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정치 복원도 여권 몫이다. "적폐청산이 이뤄진 뒤 협치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정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과거 집권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과도 거리가 멀다. 협치의 출발은 통 큰 여권의 양보다. 여권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시간은 여권 편이 아니다. leejc@

사설

버스대란 비상, 정부가 나서 문제 풀어야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15일로 코앞에 닥치면서 버스대란의 비상이 걸렸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의 12개 지역노조 위원장들은 14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부산·대구 등 노선버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우려된다.

버스 노조의 주된 요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종업원수 300명 이상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 감소로 초과근무 수당이 깎여 기사들의 평균임금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재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시간외근무 등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밀어붙이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측면이 크다. 버스 노조들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파업을 결의한 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인건비와 추가인력 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버스회사들도 추가인력 채용은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없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반발이 뻥해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어렵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운행이 멈춰질 수 있는 위기인데, 정부와 지자체, 사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버스 파업이 발등의 불이 되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방안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을 수 없다. 파업 시 비상 수송대책인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 전세버스 투입 등도 상투적이다.

버스는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연결망이 촘촘하다. 만에 하나 운행을 멈추면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의 중단보다 서민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버스회사의 임금 보전과 추가인력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나 버스요금 인상 말고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버스 노조도 준공영제 확대와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한 주 52시간제 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 당장 버스대란을 막는 일부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우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겨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

단위의 지원금을 투척하고, 일본은 1%대의 '초저금리'로 해운업을 돕는다. 세계 3위 프랑선사 CMA-CGM은 금융위기 이후 파산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여전히 3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산업에 해운업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계 전체가 돈 되는 건 다 팔았음에도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지만, 국내 1위는 사라졌고, 3위는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해운만큼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아시아항공은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대한항공은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그룹 총수 지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로 혼란스럽다. 물론 두 회사의 리스크는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 아시아항공은 위기를 맞은 그룹 재건을 위해 오랜 기간 지원을 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대한항공은 총수 부재에 따른 리스크로 고 조양호 회장이 45년간 쌓아온 글로벌 경영 노하우

와 네트워크는 물론 경영권 유지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연,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항공제도 개선안은 더욱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모호한 기준과 과잉 규제로 항공업 육성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 안은 항공업 보호가 아닌 외항사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 금지' 대목은 그 어떤 직군에도 없었던 예외 조항이다. 이처럼 규제만으로 항공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해외 사례와 대조된다.

기간산업은 국내 산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무서운 속도로 부추길 수 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정부의 기간산업에 대한 무지, 무관심'이라고 인식돼 온 선입견이 없어지길 기대해 봐도 될까. jscs508@



설마, 說麼(嗎)?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나라를 이끈다는 정치인들이 거짓말과 억지 시비 다툼을 일삼다 보니 국민들도 거짓말과 억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 나도 거짓말도 좀 하고 억지도 좀 써보자" 하는 심사가 마구 터져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결연히 말했던 가수가 불과 며칠 만에 마약 투약을 시인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진실을 말하겠다고 있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행태와 상황을 보는 국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고 혀탈할 수밖에 없다. '다들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도덕감각증 속으로 빠져들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고 층간소음을 두고 칼부림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북핵문제 협상은 교착상태이고, 정당의 당파싸움은 도를 넘은 지 오래이

며, 경제는 어렵고, ... '설마, 설마' 하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순우리말로 알려진 '설마'를 국어사전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고 풀이하면서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쓴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필자는 좀 엉뚱하지만 '설마'가 중국어에 바탕을 둔 한자어 '說麼(嗎)'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說은 '말하다'는 뜻이고 麼나 嗎는 다의문조사로 쓰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說麼(嗎)?는 '말했니?', '그렇게 말했어?'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really?', '정말?', '진짜?'에 해당하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다. 설마는 거짓과 의심과 의문이 많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애써 불안을 달래고자 할 때 쓰는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말한다. "설마 나라가 망하니까 하겠어?" 라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한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pring, 2019

My Story with Galaxy S10 5G

4K Live Streaming + Galaxy S10 5G



여행 크리에이터 송다의 S10 5G 리얼 스토리

고가의 장비 없이도 고퀄의 여행 라이브방송 어렵지 않아요

여행을 사랑하는 꿈나무 크리에이터

원래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왔죠. 폰 속에 가득 차 있는 사진들을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소소하게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사진만으론 그때의 감동이나 제가 받았던 느낌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갤럭시 S10 5G를 만나 본격적인 여행 크리에이터의 길로

그래서 저도 크리에이터가 되어볼까 하고 채널을 개설했어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면서 시간적 여유도 생겼거든요.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기본적인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 영상 몇 편을 올려봤는데, 기대보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많이 하는 라이브방송은 역시나 어려웠어요. 괜찮은 방송용 카메라는 800만원을 호가하는 데다 그 무거운 장비를 여행지마다 들고 다닐 엄두도 안나고요. 그러던 차에 접하게 된 갤럭시 S10 5G는 그야말로 저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4K 고화질로 촬영이 가능한데다 '카메라파이 라이브'라는 앱으로 라이브방송 도중 자막이랑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4K 촬영과 라이브방송이라 가능했던 잊지 못할 순간

최근에 멀리 떠날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가까이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 컨셉의 영상을 촬영했어요. 잔잔한 음악을 깔고 봄 느낌 가득한 숲을 촬영하는데 저 멀리 노랗게 고개를 내민 꽃 한송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당겨서 확대했는데, 4K 고화질이라 깨짐 없이 꽃잎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었죠. 긴 거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감성적인 자막까지 바로 삽입해 라이브로 방송했어요. 요즘 라이브방송 크리에이터가 꿈인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갤럭시 S10 5G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때요?

* 갤럭시 S10 5G는 5G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G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4G LTE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G 통신망은 5G가 아닌 5G+로 표시되며, 5G+ 통신망은 5G 통신망과 동일합니다.



SAMSUNG